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L 22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81 1982년 7월 2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July 2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2중고역 이민여성문제 심각

"영어학교·탁아소 늘려야"

「온」주의회, 가정폭력특별청문회

이민성 및 복지담당 정부관리들은 이민여성들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인색, 웰페어제공에 비협조적이며, 구타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도 남편에 의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20일 온타리오주의회에서 한 사회사업가가 증언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특히 이민 여성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만 했지, 이들을 소외감과 이질감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진 못한다고 비난한 스페인어 교민대표 모니카·리우토여사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의회의 사회개발위원회가 지난 16일 시작한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한 리우토여사는 이민여성문제전문기구의 일원이다.

리우토여사는 (1)연방·주정부가 영어습득코스와 (2)정부지원 탁아소 (3)자녀를 가진 이민여성들을 위한 임시숙소(Shelters:주로 남편의 폭력에서 피해오는 여성들이 묵는 곳)를 대폭 늘리고, 수입이 적은 여성들을 위해 정부지원 주택을 늘리지 않는한 폭력을 피해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뛰쳐나온 여성들은 다시 "폭력의 지옥"으로 돌아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남편의 재정보증으로 이민케된 여성들이 파탄이후 웰페어를 신청할 경우, 웰페어당국은 연방이민관으로 부터 남편과의 재정보증관계가 끊어졌음을 증명받아오도록 조처하고 있어, 남편이 협력않을 경우의 여성들은 심각한 재정적 곤란을 겪는다.

"구타부인들 문제에 관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차원에서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리우토여사의 발언에 대해 메리온·브라이든(Marion Bryden;비치·우드바인출신 주의원·신민당)위원은 이민자의 재정보증은 여성이 폭력을 피해 임시숙소를 찾는 즉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끊어지는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예산하에 운영되는 임시숙소(Shelters)들은 남편의 폭력으로 위급한 여성들과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무료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주며, 남편및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근을 금지·보호해주며, 무료법률상담, 직장·거주지 알선등을 해주는 곳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에는 영어구사력및 이민이라는 때문에 큰 혜택을 못 주는 경우가 많다.

여성임시숙소는 넬리즈하우스(Nellies House; 461-1084), 인터벌(Interval; 924-1491), 에반젤린(762-9636)을 비롯, 미시사가의 인트림·플레이스(Intrim Place; 271-1860), 이토비콕의 워먼즈·해비턴트(252-5829)등 10여개가 있다.

토론토 한국일보는
우수한 이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신문입니다.

"심문때 고문당했다"

"국가전복 인정하라" 철제봉으로 구타

(부산-)부산미국문화원 방화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19일 공판에서 경찰이 신문과정에서 고문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대학생인 박원식(20) 피고는 자신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동경했고, 공산주의에 의한 국가전복을 계획했다고 인정하라며 경찰이 직경 4~5Cm의 철제봉으로 전신을 마구 구타했다고 밝혔다.

박피고는 또한 고문을 받을때는 단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았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 김지회(22)양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경찰이 거꾸로 매다는 등 고문했으며, 불고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락 한국노무자 90일만에 풀려

(서울21일=연합)이락게릴라 「커드」에 잡혀있던 2명의 한국인 건설근로자들이 90일만에 풀려났다고 21일 한국외무부가 발표했다.

바그다드의 한국총영사관에 의하면 정유개발 소속의 문경회(41), 이명호(31)씨가 바그다드 북쪽의 건설현장으로 20일하오 돌아왔다.

트럭운전사인 문씨와 그의 조수 이씨는 지난 4월23일 이락게릴라에 의해 납치됐었다.

김정일 지명반대 군 장성 10명 숙청

(뉴욕-)북한의 김일성은 그의 아들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을 반대하는 군장성 10여명을 숙청했다고 19일 뉴스위크지가 보도했다.

북경의 소식통을 인용한 뉴스위크지는 이번 숙청작업은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작업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4월과 5월 각각 단행됐다고 보도했다.

세계 공산국가중 최장기집권자인 금년70세의 김일성은 김정일을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려 노력했었으나,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매번 실패했었다.

뉴스위크지는 숙청된 10여명의 장성들은 가택에서 체포됐거나, 한직으로 전보됐으며, 평양주재외국대사관 주변에는 경비가 보다 삼엄해졌다고 보도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전두환대통령 부부가 오는 8월28일~31일 캐나다방문중 숙소로 사용할 오타와의 슈라이어 총독관저.

(관계기사 2면에)

社 告

신학박사 박희민목사 논설위원으로 위촉

◆박희민 목사

신학박사 박희민목사가 본 〈토론토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위촉됐읍니다.

수년전(79·80) 〈토론토 한국일보〉의 전신 〈캐너더 뉴스〉에 연재칼럼 〈이정표〉를 집필, 교민사회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했던 박목사는, 본사 이석현 편집장, 김정근 논설위원의 사설과 함께 앞으로 평균 월1회,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줄 사상을 사설로 표현하실 것입니다.

박목사는 넓은 지식, 깊은 사고를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기술하는데 특히 뛰어난 분입니다. 즉 지식의 높고 낮음을 불문, 누구든지 친근하게 그의 글을 읽으면서 "과연 그렇군!"하는 감탄을 내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8년째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시무중, 박목사는 지난 5월 토론토대학교에서 목회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읍니다.

박목사는 장로교신학대학, 숭전대학 사학과 졸,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졸, 크라스빌신학교 박사과정 수료등의 학력과 이디오피아 선교사, 뉴욕 롱아일랜드 한인교회 시무등의 목회경력이 있고, 저서로는 〈성숙에로의 시도〉등 10권의 설교집·수상집이 있읍니다.

탐방

토론토 제네럴하스피탈 양용진박사·한상희씨

캐나다 기생충학연구의 주축

북미 최대의 기생충연구실을 갖고 있는 토론토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에서 기생충학 연구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한국인이 있다.

연구소 소장이며 토론토대 교수인 양용진박사와 그의 조수이며 연구원인 한상회씨.

세계 45억인구가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진단방법은 아직도 뒤떨어져 기생충학에는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양박사는 특히 지난 76년도에 캐나다내 한국등 각지역출신 이민들의 기생충 보유현황에 관해 연구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다.

지역별로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 기생충 보유도는 크게 높고, 기생충이 거의 없는 나라였던 캐나다는 최근 수년간 이민의 대폭 증가로 병원을 찾는 기생충 환자도 늘었다.

양박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충약을 먹어 구제해오던 회충, 편충, 12지장충, 간지스토마등은 대부분 이민자들이 보유한 채 입국하나 1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흔치않던 아메바, 다이엔트아메바, 지아디아 등의 기생충. 작년에 시내 26군데 탁아소에서 1500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10%가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증세는 복통, 설사등으로 이런 기생충은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다.

기생충보유자는 이민 신체검사시 지적되지만 입국거부의 원인은 못되고 단지 입국후 꼭 치료를 받도록 조치된다.

특히 최근 모국방문자들이 귀국후 뚜렷한 원인없이 몸이 불편하면 간디스토마를 가진 경우이기가 쉽다. 예방책 1)한국에 가더라도 날생선은 먹지말고 2)채소를 날것으로 먹지말것을 경고하는 양박사는 56년 서울사대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거쳐 수도의대(고려대의대의 전신)에서 가르치다가 60년 대만의 미해군의학연구소, 61년 미테사스주립의대에서 연구했다. 64년 캐나다로 와 해밀턴 맥마스터대학에서 생리화학 Ph.D를 끝내고 68년 이민, 69년 이후 토론토대 교수, 온타리오주 보건성을 거쳐 80년부터 토론토·제너럴병원에 근무해 왔다.

66년도에 36살의 나이로 권명숙여사와 결혼,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양박사와 더불어 다가올 국제기생충학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상희씨는 한국에서부터 기생충학을 연구한 기생충학 석사, 토론토·제너럴에 근무중인 6명의 다른 직원들과 더불어 가끔 한국인 환자의 통역도 맡는다. 한씨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병원을 선택하기보다 의사를 선택해야 하며, 토론토·제너럴은 몬트리얼·제너럴에 이어 캐나다 두번째의 역사를 자랑하는 병원이다.

(조미래 부장)

◆연구실에서 잠깐 휴식하는 양용진박사와 한상희씨(앞).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6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란 대 ROLEX 귀
곰 리 가장 믿고 살수있는 국
화 점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선
장 물
품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화소식

☼ 도매업 ☼

○채소 ○과일 ○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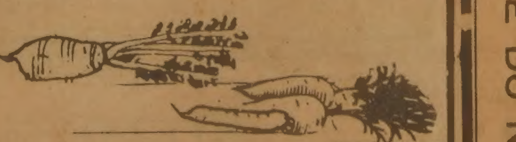
야채·과일·화초·꽃등을 취급하시는 교민여러분, 또는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업을 시작했읍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온타리오 FOOD TERMINAL까지 가실 필요가 없읍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품목은 직접 PICK UP하시거나, 주문할 수 있읍니다.
(단, 시장가격의 변동이 있을때 품목에따라 5%의 차이가 있겠음을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은 $150이상 주문시 해 드립니다. (배달은 오후1시이후)

※시간 : 오전9시~오후10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품질·가격·신용보장〉

대표 곽덕열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D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댄스파트너다툼 총격

LA교포청년 2명중상

17일 새벽1시30분께 LA근교 호손의 YMCA에서 열린 한인청소년 댄스파티장에 교포청소년 6명이 들이닥쳐 파티가 끝난후 문밖에서 시비끝에 권총을 난사, 한인청소년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의하면 이 댄스파티는 호손시 코리언 컬추럴클럽이 마련한 것으로 16일밤 8시께부터 시작됐으며, 시비의 발단은 댄스파트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을 받은 2명의 한인청소년중 1명은 구모군(18·어바인고교졸)으로 알려졌으며, 어깨등에 총을 맞았다. 사건직후 인근 카운티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일 현재 하버제네럴병원에 입원중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호손경찰서 버날스멜수사관은 "총격을 가한 한인청소년들은 세리토스지역에서 몰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범행 청소년들은 사건 즉시 모두 뿔뿔이 도주, 현재 그 인적사항등을 조사중이며, 이들 일행중 1명이 22구경 권총을 적어도 2발이상의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호손의 YMCA는 호손블러버드와 라모나스드릿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손시 경찰서와는 불과 2블럭 떨어진 곳이다.

총격을 당한 구모군의 아버지는 19일 "여름방학철을 맞아 친구들과 놀러나간다고 나간 아들이 총을 맞았다는 것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연·고대 합동야유회

샴페인터뜨려 교가열창

연세·고려대학 동문회는 지난17일 90여명의 양교동문들과 가족들이 모닝사이드·파에서 스포츠와 게임으로 친교를 나누는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양교동문회는 각각 상대교동문 자녀들에게 상대교 마크가 그려진 어린이용 티셔츠를 선사했다.

이날 게임으로는 동문가족전체가 참여한 「달걀주고 받기」, 동문자녀들이 혼성으로 구성되어 뛴 어린이 야구와 마지막으로 동문야구가 있었다.

동문야구는 승부보다는 친목위주로 진행, 양교 노장 동문들이 대거 참여, 우의를 돈독히 했다. 이날 경기는 연대가 9:8로 고대를 이겼다.

경기가 끝난후 양교동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양교교가와 응원가를 열창했다.

이날 이상훈 총영사도 연대동문으로 참석했다.

— 정 정 —

20일자 1면 머리기사중 오타와의 전두환대통령환영위원회 위원장을 오준삼씨로 기재한 것은 오준수씨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전대통령 캐나다방문 한달 남짓

이 태 은(오타와 지국장)

대통령경호는 특별기동대 「스왓트」가 수행원 100여명, 숙소는 총독관저

◆이태은 지국장

태극기도 선명한 대통령전용기(대한항공 보잉727)가 오타와 캐나다군기지 VIP전용착륙장에 도착하면 31발의 환영예포 발사와 함께 태극기와 캐나다기를 손에 든 교민들과 슈라이어총독, 트르도수상이 전두환대통령을 맞을 날도 이제 한달여를 남겨두고 있다. 그간 바쁘게 돌아가는 몇가지 준비사항을 알아본다.

정치 1번가로 불리우는 웰링턴가, 정확히 계산해서 팔래어먼트 정문 입구에 있는 분수대, 소위 물과 불이 함께 흘러내려 복합문화를 상징한다는 공존대로부터 총독관저인 서섹스·드라이브(Sussex Dr.)의 리도게이트(Rideau Ga te)까지 3.2Km에 환영 태극기가 게양된다.

오타와 교민회에선 이미 대통령환영준비위원회 대표로 오준수씨(연방정부 동자부근무·전 한국일보 오타와지국장)를 선정, 범교민적 환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프랑카드및 아치 또는 수행원들의 교통안내등 세심한 곳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행원으로 약70 명 기자단과 26여명 경호원등을 합치면 100여명을 훨씬 상회할 것 같다.

KBS-TV같은 성급한 보도진들은 이미 도착, 오타와를 곳곳 촬영하고 관계자를 인터뷰하는등 무드가 조성되고, 곧이어 26일부터 대통령방카 준비 선발대가 도착하면(의전및 경호) 결정을 이루게 된다.

이규현대사관저는 약1개월전부터 수리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대사관은 전 캐나다지역 교민들 초청에 최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초청장소로는 오타와의 샤토로리에(Chateau Laurier) 호텔 볼룸에서 방카 2일째인 29일 저녁 400여명 규모로 열리게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경호문제가 남아 있다. 전대통령이 사용할 차는 검은색 리무진으로 빨간색 바탕에 로얄크라운 황금색 마크라이센스가 달려있다.

경호관계는 연방경찰의 「스왓」팀으로 VIP 경호를 담당하는 특별기동대(ERT)가 맡는다.

★"Rideau Hall이란?" (대통령 숙소)

연방경찰(RCMP)이 경호하는 정문입구로 부터 관저입구까지는 0.8Km, 주차장은 건물 뒷편에 있다. 누구나 일반인이라도 무상출입 관광을 할 수 있고, 관저는 월~금요일 9~12시정오까지, 하오2시30분~5시까지 관광안내를 받는다. 미리 예약하면 실내안내는 물론 빨강예복의 고적대 퍼레이드도 관광할 수 있다. 예약전화는 (613-993-1709) Ms.Denize Giffin으로 하면 된다.

서면으로 신청할땐:
Addess:
Government House,
Ottawa, K1A 0A1
입장료는 무료.
실내전부를 구경하려면 7월1일의 캐나다·데이 또는 노동절의(올해는 9월6일) 오픈하우스를 이용하면 된다.

◆총독관저 보초병들의 교대시간.

◆교민초청 리셉션이 열릴 샤토로리에호텔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우리소설

第5의 사나이

<32>

冷血 ⑯

"나는 이제 파멸이다 "죽어 버릴까…"

그는 그야말로 냉혈이었다. 냉혈중의 냉혈이었다.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는 냉혈이었다. 야욕을 채우고 나서 거액을 요구하는데 한푼의 에누리도 받아주지 않는다. 말을 뱉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번에는 1천만원을 요구했으니 다음에는 2천만원을 요구하겠지.

아무리 울며 애걸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칠것 같았다. 발작이라도 일으킬 것만 같았다. 그는 소리없이 웃고만 있었다. 그녀의 애걸하는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이.

눈물을 거두고 참담한 기분으로 호텔방을 나왔다.

「나는 이제 파멸이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죽어버릴까.」

궁지에 몰릴때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 그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라도 되는 듯이.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그녀는 고개를 완강히 저었다.

「죽다니. 내가 왜 죽어. 파멸되더라도 죽어서는 안 돼.」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자신이 더없이 초라하게 생각되었다. 눈에 띌까봐 급히 호텔을 빠져나갔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나지 않았다. 천천히 걸었다. 완전히 풀어진 걸음걸이로 흐느적 흐느적 걸어 갔다. 모든 것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자신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린데 대해 그만 놀랐다. 새로운 깨달음 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으스대며 살아왔던가! 남편이 만들어준 모래성인지도 모른채 자신이 잘 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얼마나 뻐기며 서울 장안이 좁다하고 싸돌아다녔던가. 그것도 부족해서 냉면을 사먹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 결국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몸을 섞고 말았다.

그러나 그 쾌락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계속 몸을 바쳐야 되고, 거액을 상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당연한 결과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당해싸다.

자학적인 기분에 싸여 길을 건너간다. 잠자리 안경을 쓰고 머리에 스카프를 뒤집어 쓴 여인이 자가용 운전대 앞에 못대를 세우고 앉아있다. 분명한 한 사내의 부인같은데 자기가 잘 나서 차가용 운전대를 잡게 된 줄 알고 으스대고 있다. 큰 착각이다.

朴 男 그림

대저 부인들이란 남편이 떼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면 자기도 그런줄 알고 덩달아 설치고 다닌다. 남편의 벌이가 신통치 않으면 곽기가 죽어 문 밖 출입을 삼가하고 있다가 서방님이 득세라도 하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꼬리를 치고 다닌다. 간사하기 짝이 없다. 옛날의 그 조심스럽고 소박하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웃음소리부터가 간들어지게 걸음걸이부터가 살랑살랑 변해버린다. 그야말로 변신의 천재들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왜 그런까. 남편의 그늘에 가려 수줍은 듯 서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왜 모를까.

남편이 만들어 준 모래성은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다. 이혼을 당하는 날 그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날 그것도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허무한 것인데, 그래서 남편의 출세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출세한 양으스대며 싸돌아다니고 있다. 난씨도 호텔에 잠자리 안경은 왜 끼었고 머리에 수건은 왜 뒤집어 썼담. 정말 꼴불견이다.

새 사람이 된 기분으로, 그러나 절망적인 기분에 싸여 그녀는 다시 길을 건너갔다.

해외중고교생 수기

모국출판사 "창인사"모집

서울의 도서출판 창인사는 해외거주 중고등학생의 글(수기)을 모집하고 있다.

책이름 「우리들의 세계」(가 제목) 300면의 책을 내기로 계획, 미국·캐나다·유럽에서 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한인학생의 글로서 원고의 길이는 한글로 쓸 경우, 200자 원고지 30~70매, 외국어로 쓰는 경우에는 타이프용지, 10~25매로 정했고, 원고마감은 82년 8월말까지 서울 창인사로 도착해야 한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함께 보낼것-칼러 얼굴사진(여권사진 크기로), 이름, 생년월일, 진학사항등을 적은 필자이력·메모.

2. 원고 보낼 곳
창인사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188
야주빌딩 201호(우편번호110)
Chang In Sa Publishing Co.
201 Yaju Bldg.
188 Naesoo-Dong, Chongro-Gu
Seoul, Korea.

※국제항공 등기우편으로 보낼것

3. 원고료-실린분에 대해 원고료와 우편비용 지불.

※글을 보내준 학생전원에게는 창인사 발간 「무서운 아이들」(한국유학생 7명의 수기를 보내드림)

4. 글의 내용-글 쓸 때, 학급·학과목·시험·숙제·스포츠·선생님과의 관계·아시아계 아이들·독서·아르바이트·부모님과 학교등 학생의 생활주변의 일들을 재미있고 쉽게 이야기(소설처럼)로 쓸 것.(특히 자기 경험과 관찰을 많이 담을 것)

해외학생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내는 목적은 한국내의 중고등학교 교육문제와 대학진학등에 참고가 되게 선진외국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알리자는 것이나, 좋은 것 뿐 아니고, 나쁜 것 까지도 숨김없이 그대로 써주기를 바라고 있다.

토론토문의처: 고재혁
(598-4610)

닐·세다카 토론토공연

31일 야외무대 "FORUM"

50년대말 폭발적 인기를 얻었던 가수 닐·세다카가 오는 31일(토) 하오3시와 8시반 두차례 온태리오·플레이스의 야외무대 포럼(Form)에서 공연한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오-캐롤", "One-way Ticket"등으로 한국인들에게 낯익은 닐(Neil Sedaka)의 공연은 온태리오·플레이스 입장자에겐 무료이며, 어린이들의 입장도 환영된다.

포럼은 연주석과 일부 객석에만 지붕이 있을뿐 풀밭에 앉아서 구경해야하므로 담요나 두터운 겉옷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호남향우 야유회

호남지방출신교민 모임인 호남향우회(회장 장영대)는 지난17일 보이드·컨서베이션·파에서 야유회를 갖고 지연의 정을 나눴다.

이날 100세대의 200여명이 참석, 배구대회, 보물찾기등 갖가지 게임을 하며 하루를 즐겼다.

야유회도중 비가 왔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가지 않고 차속으로 대피, 비가 그치기를 가다렸다.

이날 향우회는 불고기와 음료수를 제공했으며, 참석회원들은 즉석에서 $2천을 모금 향우회 사업에 쓰도록 했다.

호남향우회측은 토론토에 약7~8백세대, 3천여명의 호남출신 교민이 산다고 말했다.

〈한맘교육강좌〉 ⑥

복합문화사회 의 한글교육

조 성 준(토론토한인교육연구회장)

한국어교육 과 캐나다사회적응문제

조성준 씨

과연 한국어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으며, 불리한 점이나 우려가 될 점은 어떤 것인가?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지난 수년간의 2개국어에 관한 조사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추려 본다.

1920-30년대에 2개국어에 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이들이 2개국어를 동시에 배울 때는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지능발달(어휘면에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영어를 배우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분열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조사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2개국어를 배우면 지능발달에 도움을 준다. 어휘가 풍부하여진다. 모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도 잘 배운다. 영어와 제2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대체로 제3국어도 쉽게 배운다는 결과를 발표해주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떠나서도 스위스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4개국어를 쉽게 한다고 한다. 모국어는 가정에서 부모자식간에 대화를 원만하게 해주고, 복합문화사회에서 두개의 세계를 갖게 하여 준다.

소련의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인간이 타고난 두뇌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면 한 인간이 약50개의 언어를 배워 유창하게 말 할 수 있고, 또 같은 인간이 14개의 대학을 졸업할 수 있으며, 백과사전을 A부터 Z까지 암기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수재교육의 권위자의 한사람인 Barbara Clark교수의 말을 빌리면 보통인간은 두뇌의 약5%밖에 쓰지않는다고 한다. 정상적인 능력을 타고난 자녀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영어·불어·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염려는 없겠다.

그러면 왜 많은 한국계 아동들이나 기타 소수민족에 자녀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를 상실해 가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 큰 이유로는 부모들이 자녀의 모국어교육에 관한 태도와 모국어교육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소요도 있겠고, 또 자녀들 자신의 자기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

커민스교수의 이민자녀 적응문제 조사결과를 간추려 보면 이민자를 적응태도를 크게 나누어, 4개로 구분할 수 있겠다.

1)자기 모국어의 문화와 언어는 배척하고, 캐나다문화 언어만 존중한다.

2)캐나다 문화와 언어는 배척하고, 자기 모국의 문화와 언어만 존중한다.

3)자기 모국이나 캐나다의 문화와 언어를 전부 신통치 않게 생각한다.

4)자기 모국의 문화와 언어도 존중하고, 캐나다의 문화와 언어도 존중한다.

이상의 적응태도에서 (1)과(4)에 속하는 자녀들은 영어를 쉽게 배우고, 이곳 사회에서 적응도 잘하여 간다고 한다. 단 문제는 (1)에 속하여 잘 적응해간 학생이 대학도 잘 졸업하고, 이제는 자기도 Melting Pot의 한 회원인줄 알았는데, 이 곳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직장을 갖는다, 직장에서 진급을 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인여자나 남자와 결혼을 할려한다 등등)를 갖지 못한다든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생겨 [illegible]독지 하여 외로움을 느낄때는(4)에 속하여 잘 적응해 온 사람들보다 문제가 크리라고 믿는다.

(계 속)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전문인의 집 브랜든 종합 운동구점

✣ 유니폼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저희는 30여가지의 유니폼을 구비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품질보장 · 저렴한 가격.

7월 스페셜 SALE
⊙ 골프채 · 자전거 · 트로피
⊙ 어린이 축구화(퓨마) $21.98
⊙ 축구볼(수공으로 된 가죽제품) $27.98

맞춤전문:
유니폼(단체및 개인)
트로피 및 상패

adidas
Wilson
CCM

337 BLOOR ST. W. ☎ 598-3732
(불루아×세인죠지)
이건영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친선골프대회 성황예상

Skyway 김인환씨
1등상에 Cash Register 1대 기증

1주일후로 다가온 실업인 협회 제2회 친선골프대회 신청마감일인 19일 현재 179명이 접수되어 교민골프대회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자, 제조회사를 위시한 각계에서 기증한 70여점의 상품가운데에서 Skyway Business Machine의 김인환씨는 $1,200상당의 Cash Register(회원에 한함)를 기증하였고, 연합상사의 김현모씨는 Kal Kan Cat Food 100상자($850상당—회원에 한함)를 기증해 왔다.

매 Par 3마다 Nearest에 비행기표가 걸려있고, Longest에도 비행기표와 고급 Driver가 상품으로 걸려있어서 선수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으며, Hole in One의 행운아에게는 세계일주 비행기표가 기다리고 있다.

많은 골프애호가들이 질서있게 하루를 즐기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한 협회는 장시간 기다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신청을 접수마감하였고, 각 선수의 Tee-Off시간을 실협뉴스에 발표하였으며, Tee-Off시간 30분전까지 등록을 마쳐주기 바라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의 신청접수는 대회진행상 일절 사절하기로 하였으므로 오해없으시기를 바란다고 한다. 등록 접수시 경기규칙이 유인물로 배부되며, 상품추첨시 필요한 추첨권이 1인당 1매씩 배부되므로 추첨시까지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주기 바란다.(재발행은 하지 않음)

이날의 심사위원으로는 김현모, 이기훈, 이춘수 제씨가 수고하기로 되었고, 경기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Nearest와 Longest의 7개소에 Marshal을 배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경기가 예정된 시간대로 진행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만찬과 시상이 진행되도록 Player각자가 시간을 지켜주고, 또한 경기진행을 지체하지 않고 이끌어 나가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주최측은 바란다.

〈회원 기고〉

잡화상 10년

박 찬 도(실협이사)

◆박찬도씨

나는 1972년8월1일 팔리어먼트와 칼튼거리 모퉁이에 이 가게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달말(7월31일)이면 만 10년이 되는 것이다. 가게하는 주목적이 돈벌이인데, 한 자리에서 비교적 오래한 사람으로서 남과 같이 돈을 못 벌었으니 별 할 말이 없다.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돈벌이 얘기와는 각도를 달리해서 평소에 느낀 몇가지를 적어보련다.

① 가게에 감사한다.

이 가게로 하여 나와 나의 가족이 10년간 밥을 먹고 살 수 있었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성장시켰으니 우선 고맙게 생각한다.

② 고객과 사이좋은 것이 나라사랑 자식사랑

10년간 가게하는 동안에 동네사람들도 열살씩 더 먹었다. 늙었던 사람은 늙어 죽었고, 한살짜리 간난이는 열살이 되어 뛰어다니며, 10대소년은 20대의 청년이 되었다. (나도 40대에서 시작하여 50대가 되었다)

이러한 이웃고객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가게하며 느끼는 보람으로 안다. 동네아이의 버릇이 나빠지는 듯하면 은근히 한두마디 충고도 해주어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일도 취미로 삼고 있다.

혹시 우리가게에서 시비가 벌어지면 손님들은 의례히 우리편이 되곤 한다.

한국이 훌륭하다고 자랑하기 보다, 내 자식 사랑에 빠지기 보다 고객에게 친절하고 정중히 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질 것이며, 내 자식들이 장차 대접받게 될 것이다. 그 이상 실질적인 나라사랑, 자식사랑이 어디 또 있을까?

③자자손손 대를 물려

가게를 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생활이 되며, 이웃과 재미있게 지내기도 하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긴 시간 일하고, 주말도 쉬지 못하니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긴 하나,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면 잘 체계화시켜 주말을 즐길 시간을 낼 수도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일많고 힘들고 바쁘긴 하나 "힘들어 죽겠다. 시간없어 미치겠다"고 과히 불평할 것 까지는 없다고 본다. 낚시하고, 골프치고, 계하고, 파티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면 시간이 안 바쁠수야 없지 않을까.

나는 가게만 따로 놓고 생각한다면 만족할 수 있고, 자자손손 대를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그렇게 하고 안하고는 자식 의사에 달렸지만)

나 스스로도 내게 불만이기도 하지만 글쓰는 취미에 과히 미쳐 가게일이 거역되어 고통이다. 마누라 고집으로 10년을 끌어 온 터이다.

④ 차별자를 동정하면 역차별

가게를 하면서 인종차별을 느끼지는 않는다. 혹 술취한 사람이 "짱깔래"라든가, "너희 나라로 가라"는 무례한 소리를 할 때 더욱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 그런 버릇이 없어진다.

「어째면 인간의 존귀성을 알지 못할 만큼 무식할까? 참 안되었다.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없을까?」라는 측은한 마음, 동정하는 태도로 대하면 상대는 무안해 하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았다.

인간차별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화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차별(경멸)하는 사람이므로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안다.

⑤가정문제는 자제심 함양으로

가게를 하면서의 가정문제를 생각해 본다. 부부가 열심히 돈벌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겠다는 마음에 합쳐져 일 많이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심히 되면 탈이 나는 예가 있다. 그것은 평소에 돈벌이에만 열중하느라 자기수양에 신경을 못쓴 탓이다.

근본마음에서의 자제력이 키워지지 못한 채 돈벌이라는 가장 큰 욕심에 두 마음이 묶였다가 합치되는 욕구사항이 해소되니까 각기 합치 안되는 제욕심따라 자제 못하고, 각개약진이 되고 만 것이다.(가게 돈벌이에 열중하여 다른 제 욕심을 안부린 것은 「자제심」이 아니다. 돈벌이가 더 좋아서 다른 욕심이 솟아날 틈이 없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가게 생활이더라도 더욱 자제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추기 위해 자기 수양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⑥ 아이들 한글공부에 대해서

부부가 가게에 매달리다 보면 아이들과 접촉할 시간이 없어서 한국말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 나는 곧이 들리지 않는다.

나의 막내딸은 말 못할 때(두살때) 이곳에 왔고, 나는 가게를 시작해서 하루20시간씩 일을 했다. 나도, 나의 처도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끼리는 영어를 하고, 학교가서도 영어만 한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을 비교적 잘 한다. 그 이유는 내가 오다가다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예스", "노", "캄히어"라고 않고, "응", "아니야", "이리 와"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지금 생각해 보나 그렇다)

아이들이 행여나 영어 잘못해 공부 잘 못할까봐 서투른 영어를 써서 아이를 벙어리(한국말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는 줄 안다. 집에서 영어 안써도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자기 소질만큼 잘한다. 공부 못하면 영어 못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부족으로 못하는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스무살 가까이 되어 부모가 말을 해도 눈만 멀뚱멀뚱하는 답답한 일이 없도록 한국말을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모 자식간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리 와", "밥 먹어", "잘잤니?", "빨리 학교 가라"는 일상어는 사용하게 되어 있다. 공부 잘하게 하려는 과한 욕심으로 한국말 알아듣게 하고픈 욕심은 깜박 잊었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 한국말 가르치는 것은 아주 쉽다. 부모가 '예스', "노", "오케"라는 말만 절대로 안쓰면 된다.

이것 저것 생각나는 것을 몇가지 적었다. 말을 하자면 한이 없고, 여하간 장사를 하는 것은 돈 벌자는 목적이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되, 과욕을 가지면 사람다운 사람이 못되고, 장사꾼다운 장사꾼이 못될 뿐 아니라, 자기와 남에게 모두 불리해진다는 원칙은 구멍가게 운영이라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잡화상개점 10주년을 맞이하여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몇사람이 담소하는 것으로써 자축의 기분을 돋아볼까 한다.

끝으로 부인과 자식들이 고생 많이 한데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는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닐상 싶다.

회원 곽덕열씨

과일·채소·꽃·도매 개업

◆곽덕열씨

지난 수년간 토론토지역 여러 장소에서 과일및 야채가게를 경영하여온 협회원 곽덕열씨는 새로운 사업의욕을 가지고 도매업을 시작함과 동시, 그 첫사업으로 희망하는 회원상점에 대해 파격적 가격으로 과일·채소와 화초및 cut flower를 배달, 공급하기로 하였다.

곽회원은 "아직도 많은 협회원들이 불과 소량의 과일·채소및 꽃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잠을 설치며 Ontario Food Terminal에 나와 고생하는 것을 볼때 누군가가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배달시스템을 갖추며는 상호공존할 수 있으리라는 착상으로 시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곽회원은 이미 food terminal의 주요도매업자들과 더불어 대량구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원이 직접 food terminal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저 도매가격에 5%의 가격차이가 있으며, 최저주문량은 1회에 $150선이다.(1회 $150 이상 주문이면 주 6일 배달도 가능함)

장차 더욱 많은 회원들의 이용이 있게 된다면 food terminal의 도매가격으로도 배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뉴욕의 경우, 수배개의 한인청과업자가 있지만 수명의 과일도매업자들이 전 한인청과업자를 상대로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한다.

연락처: 곽덕열 Broadway Fruit Market, 전화: 465-8167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제2회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

회비: $35.-

일시: 1982년 8월 2일(월) 오전9시　장소: Richmond Hill Golf Club

●시 상

▲Member
Gross Champion
Gross 1, 2, 3, 4, 5등
Net A(89이하) 1, 2, 3, 4, 5등
Net B(90-99) 1, 2, 3, 4, 5등
Net C(100이상) 1, 2, 3, 4, 5등

Nearest to Hole
Hole in One 세계일주항공표 ..... C.P. Air(회원·비회원)
Yellow 6 Florida 왕복항공표 .... 신의상사(회원·비회원)
Yellow 8 Las Vegas 왕복항공표 plus 3박4일숙박 .... Rosen Dairy(회원)
White 2 New York 왕복항공표 plus 3박4일숙박 .... O.K. Bread(회원)
White 5 New York 왕복항공표 강찬영변호사(회원·비회원)

Longest Drive
White 1 Florida 왕복항공표 .... 서울여행사(회원)
White 4 Homma Driver ..... 무나미트로피(회원·비회원)
White 8 Powerbilt Driver ...... 다우스꽃집(회원·비회원)

Most Honest

▲Guest
Gross Champion　Gross 1, 2, 3, 4, 5등　Net 1, 2, 3, 4, 5등
Nearest to Hole
Hole in One 세계일주항공표 .... (회원·비회원)
Yellow 6 Florida 왕복항공표 .... (회원·비회원)
White 5 New York 왕복항공표 .... (회원·비회원)
Longest D[illegible]
Wh[illegible]ma Driver .... (회원·비회원)
White 8 Powerbilt Driver .... (회원·비회원)

◆Tee-Off시간에 불편한 점이 있으셔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진행상 당일현장에서의 신청은 사절하오니 양해바랍니다.
◆Tee-Off시간 30분전에 본부석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Tee-off Time Schedule

1	9.00	서동준	김연오	서동현	최용도
2	9.07	차원봉	최이락	송주희	김정세
3	9.14	정회철	유기훈	함금상	차영신
4	9.21	김형도	이근호	이경선	오현표
5	9.28	이건영	김칠용	최상철	이병문
6	9.35	송종남	김남헌	최무원	김태신
7	9.42	김홍랑	이호영	송완일	이제성
8	9.49	안 덕	김창완	장무웅	이형재
9	9.56	김성진	손정현	이신년	이양구
10	10.03	고광현	문욱섭	김풍수	서인현
11	10.10	김형호	심태섭	차선행	안규정
12	10.17	한강국	김진형	조영철	이동환
13	10.24	임철원	신용목	김성규	박남희
14	10.31	김난선	김용기	송종보	함효상
15	10.38	정판풍	한천석	김은하	M. Caird
16	10.45	이형인	최동주	조용래	(Neilson)
17	10.52	김영진	김우영	정상우	한용식
18	10.59	진경호	김덕수	W Delfino	(coca cola)
19	11.06	박영철	윤여경	유영갑(Y)	박노욱
20	11.13	정길수	고광남	이기훈	김창갑
21	11.20	이광민	함대호	원장호	이영민
22	11.27	정용주	장인수	곽창수	이무교
23	11.34	김진수	최호영	이영현	정창헌
24	11.41	엄주면	김만구	최상수	정 웅
25	11.48	박종선	심재환	이창복	김현모
26	11.55	김영대	홍진표	이상철	박상남
27	12.02	M. Farb	P. Pappas	G. McGrail	B. Heffer
28	12.09	이상훈	최승락	이춘식	김태진
29	12.16	박인순	조한철	문인식	장순채
30	12.23	윤재용	엄주익	강경하	차인규
31	12.30	F. Farrow	J. Came	P. Duyn	N. Charbursky
23	12.37	B. Brick	(Sun)	J. Hudson	M. Moffat
33	12.44	배운산	이춘수	T. Brush	P. Nadella
34	12.51	조의문	박경택	이종원	R. Ward
35	12.58	이수신	강찬영	한철환	R. Levine
36	1.05	이원순	김종조	박 Jim	김남수
37	1.12	김경곤	서준경	M. Benadiba	B. Reier
38	1.19	최영식	김구명	함덕상	박경덕
39	1.26	김천만	전기석	박광철	강화연
40	1.33	허종수	구연원	백이삼	김사만
41	1.40	유영갑(R)	P. Tulloch	김이엘	R. Bredshaw
42	1.47	윤철중	양길용	배경락	D. Jenning
43	1.54	김기수	하청남	차자윤	이학현
44	2.01	김인환	조기연	이상봉	천용기
45	2.08	함태산	이계민	조동환	

●Door Prizes

1등	Cash Register(회원에 한함)	$1,200	Skyway 김인환
2등	장미적금1회 불입증	[illegible]	외환은행
3등	Micro Oven(회원에 한함)	$300	김태진이사장
4-5등	재봉틀 2대(회원에 한함)	$500	차선겸회장
6등	10 Speed 일제자전거	$250	Humpty Dumpty
7등	신용적금1회 불입증($3,000 18개월)	$154.44	신용조합
8등		$200	강찬영변호사
9등		$200	조기연
10등	Golf Bag(Large)		이병권
11등	Stereo Receiver Record Player		Silverwood
12등	Answering Service System		Panasonic
13-22등	Kal Kan Cat Food 100상자(10명) (회원에 한함)	$850	연합상사 김현모
23등	상품구입권	$100	Loeb
24등	Golf Cart	$100	배경락
25-27등	Golf Putter(3개)		이춘수
28등	Golf Bag(Large)	$100	박경택
29-35등	Golf Bag(small),Golf Cover(5개)	$100	유영갑(Y)
36등	Golf Bag		General Bakery
37등			Metro News
38등			Sealtest
39등			Intercity News
40-41등	Radio 2대	$150	Frito-Lay
42등		$150	Dominion Smallware
43등		$150	Coca Cola
44등		$150	Halton Caird Ins.
45등		$150	U. B. A.
46등		$150	Hostess
47등	Golf Shoes	$100	City Sign 홍진표
48등		$100	이인용
49등	Portable Cooler, Tee 150개	$100	Canada Dry
50등	한국일보 1년구독권		한국일보사
51등	민중신문 1년구독권		민중신문사
52등	코리언저널 1년구독권		코리언저널사
53등	Golf Bag(small)	$50	서준경이사
54등	Golf Bag(small)	$50	서동준이사
55-59등	Golf우산 5개		이학현
60-62등	Golf Putter 3개	$150	심태섭
63-67등	Golf Cover 5개	$70	이상철이사
68등	Golf Bag	$100	한천석이사
69등	Golf Bag(small)	$70	함덕상이사
	Golf Ball	$50	김풍수총무
	Golf Ball	$50	강경하
	Golf Ball	$50	이홍규
	Golf Towel 150개		이건영
	Sun Squeeze 15상자		Sun Squeeze

주최: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憲法은 온國民意志 合憲절차 政權이양

全大統領제헌절慶祝辭

全斗煥 대통령은 17일『제5공화국헌법에 의한 첫번째 대통령인 본인은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국민모두의 의지와 念願을 담은 헌법을 반드시 수호하고 그 참뜻을 살려 국민모두의 소망인 참다운 민주주의의 土着化를 기어이 이룩해 놓아야 하겠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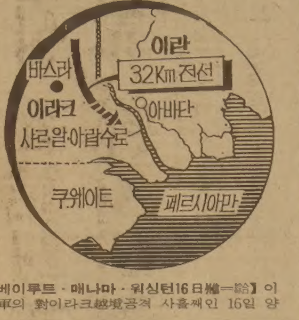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4주년 制憲節기념식에서 金相浹국무총리서리가 대신읽은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헌법에의한 소정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평화적이고도 合憲的인 절차를 통해 후임자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하는 일은 본인의 간절한 개인적인 소망일뿐만아니라 새시대, 새정치의 지향에도 부응하는것임을 한시도 잊지않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사회는 구성원 각자가 책임감과 遵法정신에 투철할때에만 비로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法治질서를 외면한채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주장만이 옳다고 내세우는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며, 자기 一身이나 派黨의 利害에 얽혀 법과 질서를 외면하고 모처럼 이루어 놓은 안정과 국가발전의 기회를 해치는 일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全대통령은 특히『지금은 반대해야할 체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舊시대적인 저항의 논리를 내세울 근거도 사라졌다』고 지적하고『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착실히 뿌리내리고 있는 민주정치가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두 힘과 정성을 모으는 일인것』이라고 강조했다。

페灣 계속擴戰

이라크·이란 양국兵士 6,670명死傷



【베이루트·매나마·워싱턴16日外信=綜合】이란軍의 對이라크越境공격 사흘째인 16일 양군은 이라크남부 바스라港주변에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했으며 양국간의 전투가 開戰의 원인이었던 샤트·알·아랍水路에까지 확대되는등 이란·이라크전쟁은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다。

美정보소식통에 의하면 이라크軍은 인해전술로 진격해오는 이란軍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당초 방어선고수에 성공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란軍 코뮈니케는 이라크軍 6백명을 사상케했으며 탱크와 장갑차 77대를 파괴하고 78대를 노획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라크軍 대변인은 이란軍 6천70명을 사살하고 탱크 1백7대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란침공군이 대부분퇴각했으며 현재 이라크에 남아있는 이란병력은 잔당에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테헤란의 군소식통들도 이란軍의 이라크越境공격이 당초 예상했던것만큼 효과적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連休 피서人波 만원

어제 전국水泳場 200萬 몰려

연휴와 방학으로 본격적인 바캉스시즌에 들어선 17일 서울江南고속버스터미널 馬場洞 시외버스터미널 서울역 淸凉里역 등에는 이른새벽부터 피서지를 찾는 인파로 크게붐볐으며 경부 영동등 주요고속도로에는 피서지행 승용차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치안본부 집계에의하면 이날하룻동안부산海雲臺해수욕장등전국의해수욕장과풀장등에서 2백만명이물놀이를즐겼다。한편중앙기상대는 일요일인 18일 전국에걸쳐 대체로흐린날씨에 호남지방에는 한때비가오겠다고 예보하고 다음주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린날씨가 계속됐다가 20·23일께 한때 비가올뿐 나머지 날에는소나기정도에 그치겠다고 내다봤다。

이날 江陵·東草등 동해안으로 떠나는 서울江南고속터미널 영동선의경우 승객들이평소의 하루 2만4천여명보다 2배정도나 많은 4만여명이몰려 터미널측은 임시차 1백50대를 증차했고 상오6시였던 첫차의출발시간을 4시30분으로 당겼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날 전국 1백62개해수욕장및유원지에 여름경찰관서 (경찰서16개, 파출소 1백51개)를 설치, 피서지행락질서를 바로 잡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크레디트·카드使用者에 海外여비限度 철폐

정부는 해외에 자주 나가는 여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여행경비한도를 철폐하고 외화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居住者間計定의 移替를 모두 허용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외환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7일 재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따르면 장기및 일반해외여행자가 해외에나가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할때는 항공료·교통비·숙박비·음식대등 해외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한도에 구애받지않고 쓸수있도록 했으며 기타교섭비·물품구입비등의 경비는 출국전에 미리 지급인증을 받아 사용할수있도록 했다。

그러나 크레디트카드 소지자의 출국전 현찰교환은 5백달러로 제한했다。이에따라크레디트카드소지자는 前回의 여행에서 쓰고남아 다시 갖고나갈수있는 3천달러까지 합쳐 3천5백달러까지는 현찰소지가 가능하다。이규정에서 이민·취업자·유학생·지사주재원등은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또 국내기업對기업이나 개인간에 서로외화지급이 필요한 경우 외국환규정에의한 허가나 인증을받아 居住者間計定의 移替를 허용키로했다。

最惡 자동차排氣오염

都市大氣파괴의 主犯… 그대로 放置

許容値、선진국 6倍

엔진改良… 관계法 고쳐야

漢大 河白顯교수 論文서

현행 환경보전법만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대도시의 대기오염 화(禍)에 대처할수가없다。쾌적한 공기를 확보하기위해서는 동법을개정,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기가스의 허용기준치를 대폭 낮추어야하고 이기준에 맞춰 우리나라 자동차엔진도 선진국형으로 개량하거나 가스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개발해야한다。

漢陽大화공과 河白顯교수(45)는 16일「대기환경기준과 자동차 배기대책」이란 논문을통해『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물론 자동차가스배출허용기준이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외국보다 5~6배나 높게 정해져있고 자동차메이커에서도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기술개발을 하지않은채생산에만 급급、서울의 대기오염은 차량증가와 함께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인체의건강을 보호할수 있는 환경기준을 마련해야하고 자동차메이커에서도 이 기준에맞는자동차를 생산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오염은 도시의 인구팽창과 대형건물의 증가와더불어 각종연료의 사용량이 급상승함에따라 날로 심각해지고있는데 주범은역시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배기가스다。

그러나 이자동차의 배기가스를 규제하고있는 현행환경보존법상의 허용기준치는 미국、일본등 선진외국에 비해 최고6배가량 높게 책정돼있다。

환경보전법(77년12월30일 제정、81년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형자동차(2.5톤이하、휘발유사용)의 경우 출고때 가스배출허용기준치가▲일산화탄소(CO)가 ㎞당26g이하▲탄화수소(HC)가 3.8g이하▲산화질소(NOX)가 3.0g이하로 규정돼있다。또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경우 매연이 50%이하로 정해져 있다。또 출고후 운행중일때는 휘발유나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일산화탄소가 4.5%이하、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매연이 50%이하여야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반해 미국의 머스키법이나 이를 모방한 일본의 자동차 가스배출 허용기준은▲일산화탄소가 ㎞당 5.4g▲탄화수소가 0.65g▲산화질소가 1.6g이하로 결국 우리나라 기준치가 각각 4.8배、5.8배、1.9배나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머스키법은 12년전인 1970년 소극적인 대기오염방지를 고려한 1967년의 법을 전반개정、사람의 건강과 복지를위한 환경기준을 골자로한 법으로▲대기오염의 방지를위해 자동차및 항공기의 가스배출규제를 정한 법이다。

이법에의해 만들어진 환경기준은 대기중 일산화탄소가 8시간평균 9PPM、탄화수소가 3시간평균 0.24PPM、산화질소가 연평균 0.05PPM、아황산가스가 연평균 0.03PPM이하 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법에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10분의 1로감소시켜야했으며 정부당국의 엄격한 통제와 자동차메이커의 기술개발로 지난76년부터 이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했다。

한편 당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던 일본도 머스키법에 자극받아 미국보다 1년앞서 이기준에맞는 자동차를 개발、수출까지 했다。

이같은 기준에맞는 자동차를 생산한결과 일본의경우 큰 효과를 거두어 배출가스량이 72년을 기준으로 73년엔 70%로、75년엔 39%로、78년에는 무려8%로 감소되었다。

미국의 머스키법은 또 6개오염물질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대기아황산가스는 0.5PPM이하로서 연간을 통해 24시간 평균치가 0.5PPM이하인 일수가 70%이상 유지되고 평균치가 0.15PPM이하이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인체의 건강을도외시한이같은 환경기준의 결과는 光化門지역에서의 대기환경오염측정치를 보면 엄청나다。

지난78~79년 이지역의 대기오염월평균치를 보면 산화수소는 연평균 2.4PPM으로 미국환경기준의 10배、산화질소는 0.04PPM~0.17PPM으로 2~3배、아황산가스는 0.04PPM~0.28PPM으로 1.5~9배나 높은것으로 나타났다。河교수는 이중 아황산가스의 오염도가높은것은 연료중 유황분이 많은 중유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볼수있으나 나머지 오염물질은 모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25만여대의 각종 차량이 해마다 15~20%의 증가율을 보이고있는 서울은 갈수록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의 절대수가 늘어나고있는 우리나라실정에서 때를 놓치면 곤란하다。또우리나라 자동차의 선진국 진출에도 엔진개량등이 전제되고있는점을 간과할수 가없다。

◇ 全斗煥 대통령이 德裕山국립공원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대회준비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德裕山을 세계의 名所로"

全대통령 亞·太잼버리大會 준비現場 시찰

全斗煥 대통령은 17일상오 全北茂朱郡雪川面三公里 德裕山국립공원에 마련된 제8차 아시아·태평양잼버리대회 준비현장을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대회준비현장에 도착、趙澈權全北지사로부터 준비현황을 보고받고『이번 잼버리대회는 국내외 청소년1만2천여명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인만큼 도지사를 중심으로 기관장들과 지역유지들이 잘 협조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도록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德裕山국립공원은 山水가 빼어나게 秀麗하므로 잘개발해 세계적인 名所가 되도록 하고 특히산불방지를 위한 교육과 감시를 잘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이번대회에 많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점을 지적하면서『우리 청소년들에게 모든외국인의 言行을 주체성을 갖고 소화할수있도록 교육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지금 우리 청소년가운데는 통일의식이 뚜렷하지 않은것 같으니 통일에대한교육도 시키는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德裕山국립공원일대를 공중시찰하고 茂朱邑내의 한대중음식점에서 이지역 유지및 기관장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한뒤 이날하오 歸京했다。

◇「脫서울 大作戰」 제헌절 황금연휴 첫날인 17일 서울시내 버스터미널·주요역에는 피서인파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먼저 차를 타려고 아우성을 치기도했다。【東馬場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국、쌀輸入 중단"

美수출업자들 紛爭으로

【로스앤젤레스16日=聯合】한국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쌀수입을 중단할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즈紙가 16일 보도했다。

타임즈지는『한국정부가 오는87년까지는 일체의 쌀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결정은『미국산쌀의 對韓수출을 둘러싸고 美국내쌀수출업자들간에 심각한 분쟁이 어지고있기때문에 내려진것』이라고 전했다。

美國의 쌀수출업계 소식통들은 한국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캘리포니아의 쌀농가들에게 타격을줄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금년도에 캘리포니아산 쌀의 약60%에 해당하는 50만t을구매할계획이다。

어제 國立墓地참배 金총리서리등 獻花

【方政俊기자】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17일상오 姜慶植 재무、裵命仁법무、朴贊鉉총무처장관등과 함께 국립묘지를찾아 충혼탑에 獻花焚香했다。

金총리서리는 故李承晩、朴正熙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했다。

地平線

감재납북된 우리 어선 제5마산호의 소식은 아직 알길이없다。韓赤이 배와 어부들의 즉각송환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만행을 규탄하는 소리가 높아가고있다。거듭된 만행에 대한 분노와 함께、어선 납북 보도를 볼적마다 해괴하다 느끼던 점 하나를 짚어두고 싶다。▼어선 납북이 잦은 현장은 「대화퇴」란 해역이다。漢字로 하면 大和堆。육지와 마찬가지로、바다밑에도 산과 들과 골짜기이 있다。堆란 바다 밑의 산이다。다만 그꼭지가 넓은 高原모양으로 평평하다。울릉도동북방에 바로 이런곳이 있다。북위 39도쯤、동경 134~5도에 걸친 이해역의 수심은 3백~2백36m。여기 오징어떼가 모여살아、다시 없는 어장을 이룬다。▼그것은 좋은데、왜 이 어장을 大和堆라 불러야 하는 것일까。「大和」―일본말로 「야마또」는 옛 일본의 나라이름이자 부족이름이다。이것을 후세 일본사람들은 저네들의 美稱으로 쓰지만、그말의 예전 漢字표기가 倭다。그렇게 보면、李哲熙·張玲子부부의 회사이름이 하필「大和産業」일까도 싶어지지만、大和堆만큼은 그 이름의 유래가 분명하다。1926년 이 해역을 정밀측량한 일본군함 이름을 딴것이다。▼地名은 곧잘 그고장의 내력을 나타낸다。경우에 따라 기구함을 느끼게도한다。예컨대、울릉도가 海圖에 처음 오르기는、「다즐레」다。1787년 섬을 처음 본 프랑스함대의 L·다즐레 교수 이름이다。독도의 서양이름「부솔」、「리앙쿠르」역시 프랑스船名에서 온다。일본사람들이 두섬을「다께시마(竹島)」―「마쓰시마(松島)」라 했던 것도 어정쩡한 일이지만、東海란 바다이름마저 日本海―「저팬·시」로 바뀌었으니、수치스런 일이다。▼여하간 지금 東海는 어디까지나 東海란 것이 우리네 생각이다。울릉도와 독도가 있을뿐 다른 이름의 섬은없다。그런데 大和堆란 무엇인가。일본이름어장에다、그나마 同族의 만행이 두려워 마음놓고 그물을 칠수가 없으니、분하고 해괴하다。바다마저 分斷된 비극이야 앞날의 수복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바다이름을 빼앗긴 수치를 지금껏 새겨야 하는까닭은 알수가없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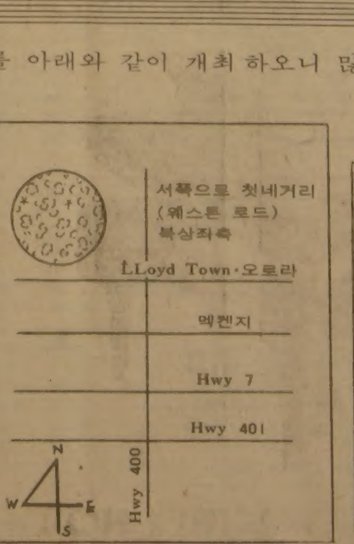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제3회 대사배 교민친선 골프대회

1982년도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배 교민친선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골퍼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8월 7일(토) 오전11시
○장 소 : CARRING ON GOLF CLUB
○회 비 : 회원 $30, 비회원 $40
○시 상 : 그로스 1, 2, 3등, 네트 1, 2, 3등
롱게스트, 니어리스트, 행운상,
장려상, 레이디상, 참가상



앞으로의 각종대회 일정

일 시	장 소	주 최	참가범위
7월31일(토)	Castlemore	경동 중·고동창회 (고교대항및 개인)	OPEN
8월 2일	리치몬드·힐	실협인협회	회원및 게스트
8월 7일	Carring on	골프협회	OPEN
8월21일	리치몬드·힐	한맘골프회	회 원
9월5, 6일	Castlemore	골프협회	Top 10
9월18일	리치몬드·힐	라이온스클럽	OPEN
10월 2일	Castlemore (예 정)	골프협회	회 원 (신규회원 환영)

주 최 : 한인골프협회 후 원 :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토론토 총영사관

PLO 잠정疏開제의

아라파트 레바논內 다른지역으로

"行先地협상 妥結때까지 베카등 東北部지역철수"

이스라엘 "他國철수아니면 受諾않겠다"

【베이루트16日AP合=聯合】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야세르·아라파트의장은 16일 이스라엘軍의 西베이루트포위를 종식시키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곳의 PLO게릴라들을 레바논내의 다른 지역으로 잠정 소개시킬 것을 제의했다고 레바논정부소식통들이 말했다.

레바논정부소식통들은 아라파트가 샤피크·알·와잔 레바논수상과 만난자리에서 PLO의 행선지를 결정키위한 협상이 진행되는동안 PLO戰士들을 트리폴리나 베카계곡등 레바논의 북부와 동부지역으로 철수시킬것을 제의했으며 와잔수상은 이를 필립·하비브 美中東특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관리들은 이날 이스라엘이 PLO측의 이같은 새로운제의를 수락하지 않을것임을 시사했다.

한 이스라엘관리는 PLO가 베이루트는 물론 레바논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PLO게릴라들이 레바논내의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와잔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PLO의 새로운 제의가 『현재 협상을 가로막고있는 장애들을 우리가 헤치고나가는데 도움이될만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논평했다.

◇5백명의 이라크포로들이 16일 팔레스타인 투쟁을지지하고 이스라엘및 이라크정부를 규탄하는 군중집회에 참가하고있다. 【테헤란16日AP電送=聯合】

美·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에 引受설득

【베이루트16日AP·UPI=聯合】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西베이루트에 포위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게릴라들이 아랍세계에 분산수용될때까지 이들을 잠정받아들이도록 시리아를 설득하려하고있다고 레바논 방송이 16일 외교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蘇製 정밀터널 굴착裝備 北傀서 도입배치땐 可恐

이, PLO戰서노획

【홍콩16日=聯合】 남침을 노려 땅굴을 판바있는 북괴가 최근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軍에 노획된 소련제 정밀터널굴착장비를 소련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아 비무장지대에 배치할경우 한반도에 『가공한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으로 우려된다고 16일 홍콩의 한 군사분석가가 말했다.

수개월전 서울을 방문한바도 있는 하비·스토크윈씨는 이스라엘軍이 남부 레바논의 시돈지역에서 노획한 蘇製의 PLO게릴라 장비가 컴퓨터를 포함, 복잡하고 정교한것이며 특히 아직까지 서방기술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것으로서 이터널굴착기는 이스라엘의 하이파港 동방약 50㎞의 타보르山밑에 불과 이틀만에 터널을팔수있는 놀랄만한 기계라고말한 예루살렘발 통신들의 보도들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북괴는 수년전 북유럽과오스트리아로부터 광산용 굴착기를 구입한바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예루살렘까지 解放"

호메이니 "후세인政權 타도목표 戰鬪"

【니코시아(키프로스) 16日AP合=聯合】 이란회교최고지도자 호메이니옹은 16일 이라크의 사담·후세인 대통령정권을 전복시킨후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호메이니옹은 이날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하기위해 테헤란에 운집한 수십만명의 군중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란은 전쟁배상금지불과 이라크 바크黨정부전복목표가 달성될때까지 전투를 중단하지않을것이며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은 이라크중부의聖都인 카르발라를 통과하는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이란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호메이니옹은 『이란은 이라크의 바크黨정부를 전복시키고 이라크領內를 통과함으로써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수있다』고 강조하고 팔레스타인지도자들에게는 『신앙을 갖고 죽을때까지 시온주의자들과 싸워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文鮮明씨 脫稅혐의 징역18월·罰金선고

【뉴욕16日UPI=聯合】 통일교의 文鮮明목사(62)는 16일 뉴욕시 맨해턴연방지법으로부터 탈세혐의로 징역18월 2만5천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럴드·괴텔판사는 文목사의 범법사실에 대해 일반적인 제재조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은 석방된다는 말을 하게 될것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駐방 美대사관被襲 레바논侵攻에 항의

【대카(방글라데시) 16日AP=聯合】 팔레스타인人들을 비롯, 아랍과 방글라데시人 1백명이상이 16일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에 항의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주재 美國대사관을 습격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그러나 부상자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도 경미하다고 경찰은 말했다.

英戰略정보司에 間諜

14년暗躍 40代택시운전사 起訴

下院, 眞相규명요구

【런던16日AP=聯合】 영국의 전략정보사령부내에 지난 14년간 간첩이 잠입해온 사실이 최근에 적발돼 의회의원들이 마거릿·대처수상에게 진상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하원의원들은 내주에 대처수상에게 제출할 서면질의에서 런던서쪽1백60㎞ 첼트넘소재 『정부통신본부』내의 컴퓨터장치비밀취급소에 주요간첩이 침투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지난15일 이사건과 관련, 이도시의 택시운전사 제프리 프라임씨(44)를 간첩혐의로 기소했는데 그가 지난 14년동안 간첩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침에

張德順 서울大교수

人情을 살리는 바람

에어컨 冷氣보다 부채 風流 그립다

복중에 생각나는 것은 부채다. 죽죽 찌는 더위를 쫓아버리고 순간이나마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주는 것은 부채이기 때문이다. 부채는 보기만해도 우선 더위를 잊을수 있고, 느티나무 그늘에서, 혹은 원두막위에 앉아서 부채질하는 옛 風流는 생각만 해도 더위는 가시게 된다. 부채는 風流의 멋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옛선비들은 부채를 좋아했다. 人生의 「부채이야기」도 [illegible]의 한 방법이 아닐까?

고려왕조의 文人이요 政治家였던 白雲居士 李奎報의 글에 「부채에 부치는 글:團扇銘」이 있다. 짤막한 글(銘)이다. 여기 全文을 번역하여 인용한다.

「푸른 대나무로 둥근 부채를 만들고 거기에 엷음같은 비단을 발라 단장했으니 서늘한 바람이 스스로 불어온다. 三伏가 뜨겁기는 마치 그릇굽는 가마속 같으니 바라건대 이부채를 가지고 흔들어 부채질하여 그맑은 바람으로 그대들이 타는것을 식혀서 구하라」

「푸른대나무」「엷음같은 비단」「서늘한바람」의 글귀만 들어도 우선 서늘해진다. 그러나 「그릇굽는 가마속」이란 말에 이르러서는 숨이 탁탁 막히는 더위를 연상케한다. 이 가마속같은 三伏는 곧 現實이다. 피부에 느껴지는 무더위는 現實의 괴로움인데, 부채의 맑은바람은 이三伏苦를 날려보내어 인류의 구원을 얻게한다는 形而上의 교훈, 아니 宗敎的 세계관을 암시해 주고있다. 扇風, 곧 부채의 바람은 風流만 일으키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汚辱을 멀리 날려보내고, 心身아울러 淸淨한境地로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새는 더우면 扇風機의 바람을 이용한다. 「부채의 바람」임엔 예나 이제나 같은 말이다. 그러나 부채의 바람과 선풍기의 바람은 그 格과 核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선풍기의 바람은 요사스럽고 방정맞다. 妖怪의 장난같은 이바람은 사람까지 妖妄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현대인의 避暑法의 첫걸음이 선풍기 앞에 앉는 것이다. 이것은 庶民들의 피서법이요 돈있고 지위 높은 사람은 에어컨이라는 冷房에 처박혀 있는 것이다. 하기야 에어컨이라는 것도 귀족의 피서법만은 아니다. 富豪家에 냉방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늘한 냉방에 앉아서 컬러 텔리비전을 틀어놓고 각각 제가 좋아하는 프로를 구경하고 앉았으면 피서는 제대로 되고, 세상만사가 「모두 오케이다」.

그러나 두꺼비집의 전기바퀴는 세차게 돌아가니 그 전력의 소모는 幾何인가? 컬러TV에 焦點을 맞춘 視力은 각각으로 衰退해 지고 에어컨의 冷氣가 피부와 오장육부를 자꾸 자꾸 죄어들어가서 마침내 천식이니 신경통이니 하는 온갖 病(地下病, 冷房病, 高層病등등…)을 일으키고 있다는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이 병들은 요새는 문명병, 혹은 현대병이라고들 하는데, 이 문명과 현대가 인간의 정신력을 마비시키고, 인간만이 가지는멋을 상실시켜서 급기야 휴매니티마저 빼어가서 현실은 삭막해 지기만한다. 선풍기의 바람과 에어컨의 冷氣는 바로 殺人의 妖物이요 妖氣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채의 맑은 바람은 오히려 꺼져가는 불을 소생시키듯이 인정을 되살리고, 陶窯의 熱氣와도 같은 人生苦를 물리치고 救援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다.

피서방법으로 부채얘기를하다가 인류구원문제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白雲居士의 글 때문이기는 하나 사실 白雲의 말이 맞는다. 더위는 살갗에 느끼는것이지만 이외부의 더위를 식히는 방법이 마음속의 熱을 식히는자세에 이르면 피부의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避暑란 낱말은 더위를 피한다는 뜻이다. 더위를 피해서 냇가로 나무그늘밑으로 비실비실 피해 다니는것이다. 그런데 滌暑는 더위를 씻어버리는것이니 더위와 대결하여 피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더위를 몰아내고 시원하게 씻어버린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避暑의 방법인데 그것이 부채를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중국의 詩에도 「來風生避暑, 靜夜致淸凉」이란 귀절이 있다. 旺園의 詩라고 기억한다.

「來風」은 자연의 바람도 되겠지만 부채의 바람도 될수있다. 대나무살로 엮어진 부채는 「서늘한 바람을 스스로」 불러 일으킨다. 이부채를 들고 고요한 밤을 명상과 혹은 吟詩로 더위를 식히면 정녕 마음속까지 시원해질것이 아닌가.

朝鮮王朝 宣祖때의 멋장이인 林悌 白湖는 엄동설한에 나이 어린 愛妓에게 부채를 선사한 일이있다. 그 부채에 이런 詩句를 적어주었다.

「엄동설한에 그대에게 부채를 주는것을 괴상히 여기지 말라/ 그대 아직 어려서 어찌 그뜻을 알랴마는/잠 안오는 밤, 님이 그리워 가슴이 불탈제/ 홀로 五六月의 무더위를 이기듯이」 이 부채로 「胸火」를 식히라는 것이다.

요새는 부채(全州産이 좋다고들 한다)가 골동취미로, 또는 書畵家들의 一筆揮之의 畵紙로 쓰여지고있다. 그것도 좋다. 부채에 그려진 그림, 글은 한결같이 시원한 내용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부채로 선풍기 대신 바람을 일으켜 보라. 모시적삼, 모시바지를 입고 竹簾을 드리운 대청마루에 正坐하여 몸을 좌우로 흔들며 白雲의 부채나, 白湖의 부채로 알고 부치면 더위는 산산히 날아가고 凉風은 가슴, 창자에 까지 스며들 것이다.

어찌 冷房에서 텔리비전 보는 맛에 비긴 것인가.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고, 몸에 온갖 요사스런 병도 없다. 오히려 心身을 맑고 시원하게 하는 건강법도 된다. 나에게는 부채가 여러개 있다. 대나무살로 된 폈다 접었다 하는 부채말이다. 옛 선비가 詩를 쓴 부채, 글씨 잘 쓰는 벗의 揮毫가 있는 부채, 여류 동양화가가 그린 江上帆船畵등이다. 나는 이것들을 붓통에 꽂아 놓고, 때에 맞추어 골라가며 꺼내어 부채질을 한다. 글을 쓰다가 붓이 나가지 않을 때마다 부채질을 하며 담배를 피워문다. 그러면 멈추었던 붓도 움직이게되고 머리도 맑아진다. 三伏中의 더위는 느낄 겨를도 없다.

어떤친구가 몇해전에 부채를 나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옛선비의 親筆漢詩가 쓰여있다. 그친구 하는말이 「부채의 살을빼서 나를주고 종이를 표구해서 벽에 걸어두라」는것이다. 나는 全州産부채를 하나주면서, 「부채란 부치는 것이지 벽에 걸어두는것이 아니라」고. 그도웃고 나도 웃었다. 골동품은 死物이다. 죽음에서는 生氣가 안난다. 부채의 生命은 凉風을 불어일으키는데에 있다. 옛사람이 부채에 「[illegible]때에는 生凉한 바람을 연상했을것이고, 그부채를 누구에게나 줄때에는 「서늘한 바람」「맑은 바람」을 창조하라는뜻에 있을것이다. 이런부채를 어찌 벽상에 걸어둘 것인가. 이부채로 (金山 美文化院방화사건, 宜寧사건, 李·張사건, 오랜가뭄등 어려운 現實의 心火마저 씻어버리는 바람을 불어 일으켜야한다.

특파원報告

유럽서 붐이룬 한국觀光 소개

佛국영항공社서 컬러畵報

TV에선 88서울五輪준비등 소개放映도

벨기에서도 大型프로 예정

한국과 유럽의 거리는 항공로를 통해 어느때보다 좁혀진게 사실이다. 한국의 공식, 비공식 방문단이나 여행자, 관광객의 유럽왕래가 파리를 기점으로 어느때보다 부산해 짐을 이곳에서는 누구나 느끼고 있다.

공관직원, 은행지점, 상사 주재원들은 자주 업무를 중단하고 오를리 공항이나 샤를·드골공항으로 나가 방문객을 맞고보내는 일때문에 비명을 올린다.

한국인들의 유럽접촉, 유럽관광이 가속화하는데 비해 유럽사람들에게 한국은 아직도 먼 거리에 남아있다. 이 방면의 심한 불균형을 어떻게 회복해 갈까?

『한국은 4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이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한국은 풍부한 문화재, 사원, 고궁 그리고 고유의 문명기재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일찍 금속활자를 발명했다. 이렇듯 과거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오늘날의 활발한 팽창을 과시하고있는 이나라가 어째서 이제까지의 관광경향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프랑스 국영항공 에어프랑스의 기내誌 「아틀라스」7월호는 이런 글과 함께 모처럼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중점화보로 소개했다. 동지 편집장 로제·망기아바카가 서울에 출장, 직접 촬영한 20장의 컬러사진이 특집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에어프랑스가 서울취항을 염두에두고 마련한 특집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이 밝은 색조로 부각되었으니 눈에 띄게 마련이다.

에어 프랑스는 또 여성고객에게 배달하는 여행안내서 「마담」誌의 표지에다 밝은 한국 어린이의 표정을 확대하여 관광안내를 하고있다.

또 프랑스제1텔리비전(TF1)은 17일 밤10시에 「7중의 7」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이모저모를 약 4분간 방영했다. 동방송은 앞으로 88서울올림픽준비상황관광, 태권도, 우편엽서를 특집으로 다루는 45분짜리 대형프로도 마련하고있다.

◇사진은 에어프랑스항공사의 첫여성고객관광안내서인 「마담」誌 표지에 실린 밝고 천진난만한 표정의 한국어린이모습.

오는 10월에는 벨기에 국영텔리비전이 「멀리 서울로부터」라는 제목의 52분짜리 큰 작품을 처음으로 방송하기로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벨기에의 프러듀서 장·안트완느가 제작중인 이프로는 통도사의 석가탄일, 지리산 청학동의 삶, 광주, 부여, 경주, 서울등지의 각종 문화재를 담아 「발전된 한국에서 보존되고 있는 고전문화」에 촛점을 맞추고있다. 그것은 벨기에 국영텔리비전과 함께 프랑스 제2텔리비전(A2)에 동시방영될 계획이라니 전파범위가 훨씬 크게 되어있다.

유럽인이 동방속의 한국을 보는 관점의 한가지는 시사화보 「라티뛰드」(7~8월호)의 제3세계난에서 읽을수있다.

「남동아시아의 새로운富」라는 제목의기사는 아시아의 뉴욕인 홍콩, 대약진의 대만, 어제의 거룻배(삼판)와 내일의 마천루가 대조하는 싱가포르를 소개함과 함께 수출우선의 한국을 얘기하면서 『이나라는 88서울올림픽을 조직하면서 발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아시아 4개국이 산업원동력, 상업적 공격성, 노동력의 능률성, 기술개발, 투자유치, 견고한 재정및 행정의 하부구조로 산업화에 성공한것은 바로 「孔子와 전자계산기의 무서운효력」과같다고 비유하고있다. 【파리=安炳璨특파원】

메아리

외국어熱

언어는 민족의 자산이다. 말을 통해 우리는 다른 민족의 사상, 문화생활, 풍속과 습관을 서로 이해하게 된다. 자기나라말을 완벽하게 배우고 쓰는 일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외국어를 익혀 마음대로 구사한다는것은 더 어려울수 밖에 없다.

글을 전문으로 쓰는 작가들도 외국어를 배운다는것은 고통스럽기만 한 모양이다. 소련의 푸시킨은 친구들을 불러 놓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영어원문으로 읽어 주었다. 그자리에 있던 전문가가 비꼬았다. 「지금 어느 나라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프랑스 소설가 파뇰의 영어발음도 어지간했던것 같다. 무명시절 영어교사를 지냈는데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의 영어발음이 「괴상한 소리로 들렸다」는 익살스런 이야기가 있다.

요즘 외국어 학습열이 날로 높아간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외국어 조기교육론이 일자 작년 가을부터 가열되었다. 대학생들의 외국어 수강신청이 20~30%증가했고 방학이 시작되자 외국어 특강이 초만원 상태다.

캠퍼스만의 열기가 아니다. 경제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체마다 社運을 걸다시피 사원들의 외국어교육에 힘을 쏟고있다. 이젠 외국어가 장사밑천이 된것이다. 서울올림픽에 대비, 공무원도 영어교육을 특별히 받게됐다. 외국손님을 맞을 택시운전사에게까지 영어를 배워 주겠다고 팔을 걷고 나설 지경이다.

영어붐은 일본과 대만서도 뜨겁다. 일본은 이미 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특설 영어회화학교가 인기를 끌었다. 지금은 전국에 4백여개나 된다고 한다.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회화실력을 따로 보충하는것이다.

대만의 경우, 텔리비전이 방영하는 外畵에 자막을넣고 대사는 그대로 들려 준다. 이점은 우리 방송국도 본을 땄으면 좋겠다.

TV외화를 보면 어리둥절하고 답답한느낌마저 든다. 우리말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닌 어설픈 말이 들려 온다. 더빙의 화술이 「제3의 언어」를 만들어 내고있다. 외국어 공부는 고사하고 우리말까지 손상을 입을까 걱정이 든다.

외국어회화는 생활을 통해 익히는게 바람직하다. 외국인을 접촉 할수없는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 音色에 젖어들게 해야할것이다.

海外토픽

"女王목소리 침착"

★英당직경사 비상사태 뜻밖

런던경시청은 버킹검궁 침입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에낸 보고서에서 괴한의 엘리자베드여왕침실 침입당시 경비를 맡았던 경찰관의 근무태세를 크게 비난했다고 공식 소식통들이 전했다.

런던경시청은 이번의 괴한침입사건을 계기로 영국황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는데 경시청이 취할 보안강화조치에는 순찰강화, 전자경보장비 현대화, 암호체계개발및 왕실직원들에 대한 정기보안브리핑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괴한침입시 여왕의 부름에 8분이나 지체했던 시실·헌트당직경사(27)는 사건조사기간중 정직처분을 당했다.

그는 정장을 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느라고 지체했으며 여왕의 전화호출목소리가 워낙침착해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눈치챌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런던=聯合】

고기잡이禁忌 깨져

★티베트族 神聖觀념단념

중공서부의 티베트지방 주민들은 물고기를 신과같은존재로 생각, 고기잡이를 금기로 여겨오던 과거의 통념을 깨고 드디어 고기잡이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중공의 신화사통신이 보도.

대부분의 티베트 주민들은 강과 호수에 어업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50년대말까지 생선을 결코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부정책과 근대화물결에 따라 56개의 민물고기잡이단을 조직, 일년에 무려 2백톤가량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는것. 【北京=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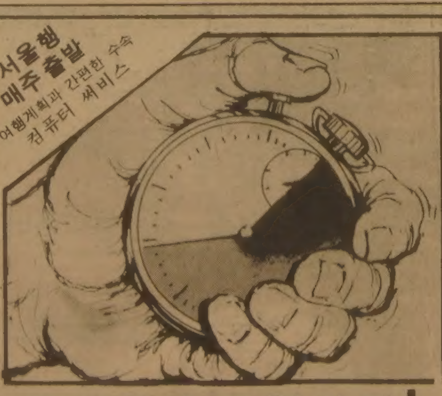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노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출발에서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여행계획과 간편한 수속,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겠읍니다.
535-6004 535-8801
SEOUL TRAVEL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최 동 주
(R)293-9970
IATA

작게는 「자신의건강」 크게는 「나라의 살림」을 위한 智慧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特輯部 李光榮 次長 文昌宰 기자
◇經濟部 金基炅 次長대우
◇文化部 馬桂淑 기자
◇外信部 崔海雲 기자 宋大洙 기자
◇寫眞部 權周勳 기자
◇특파원 宋孝彬 東京

구독신청 533-2361

「쌀밥·쇠고기국」의 神話를 벗어나자

왜 해야하나 食生活개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즐거움 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 먹는 즐거움을 잊고 살아왔다. 식생활엔 다섯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는 살아남기위한 生存(Survival)의단계이고 둘은 음식이 무엇인지알고 먹는 認知(Recognition)의 단계이며 셋은 選擇(Selection) 넷은 嗜好(Preference) 다섯은 藝術(Art)의 단계이다. 식생활도 마지막엔 예술의 단계로 승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먹는즐거움은 단계가 오를수록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이중 인지와 선택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있다. 먹을거리(食糧) 전반에 걸쳐 영양가를 따지면서 고르는 단계에 이른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와 「선택」에 혼란을 빚고 있다. 또 먹는 즐거움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社가 「건강합시다」란 캐치프레이즈로 거국적인 食生活개선캠페인을 벌이고 있는것은 여기에있다. 먹는 즐거움을 알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할식생활개선의 뜻과 문젯점 그리고 바람직한 실천방안을 총점검해 본다.

【李光榮 기자】

◇가지수는 많지만 영양면에선 별로 다를게 없다. 경제적이면서 건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인 식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自給가능 보리등 두고도 작년 外穀도입에 21億弗

「흰쌀밥에 쇠고기국」—불과 얼마전 우리조상들이 바라던 珍羞盛饌이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못먹고 헐벗었다. 그래서 흰쌀밥과 쇠고기국은 아주 부자 이거나 명절과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야 맛볼수 있는 별식처럼생각했다.

朱軫淳 高大부설 한국영양문제연구소장은 한국인의 쌀과 쇠고기에 대한 지나칠정도의 선호도는 이같은 사회적인 배경이 밑에깔려 있다고 했다. 광복이후 돈만있으면 누구나 쌀을 구할수 있게되자 「입쌀밥」에 대한 욕구는 쌀 소비량을 급격히 늘려놨다. 우리의 쌀 일변도의 식생활패턴은 국가의 양곡수급정책이나 국민의 영양에대한 인식과 개념에 관계없이 굳어졌다. 그래서 81년 한해 해외로부터 1천5백60만석의 쌀을 들여와야했고 전체 양곡도입을위해 21억달러(약1조4천7백억원)에 이르는 큰돈을지불해야했다.

식생활은 국민의 건강과직결된다. 영양상태가 좋으면 질병에 대항하는 힘이 커진다. 일을해도 피로하지않고 행복감을 갖는다. 영양상태가 나쁘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몸이 허약해져 잔병치레를하게되고 일을하면 곧 피로에 빠져 매사에 의욕을 잃게 된다. 그래서 半健康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인 영양소요량 (1인1일당)

에너지	2200kcal
단백질	70g
칼슘	0.71g
철	14mg
비타민A (retinol)	1900I.U.
비타민C	50mg
비타민B1	1.0mg
비타민B2	1.2mg
나이아신	16mg

營養균형·糧政 모두의 課題
「變化로 體位향상」 日이 교훈

모든 나라가 기준 영양섭취량을 마련하고 계몽 권장하고 있는것은 이때문이다.

식품의 3대 영양소는 糖質과 蛋白質, 脂肪. 온 건강(全健康)을 위해 이들이 하루 전체 섭취열량중 차지해야할 적절한 비율은 대략 당질 63~69%, 단백질 11~12%, 지방 20~30%선. 이에대해 우리나라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은 80년기준 2천4백85칼로리. 구미 여러나라의 3천칼로리엔 크게 못미치지만 필리핀, 인도등 동남아시아국가의 2천칼로리 수준엔 크게 웃돌고있다. 전체섭취열량중 당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74.8%. 권장량을 웃돌고있다. 단백질은 11.9%로 그런대로 합격선. 지방은 13.3%로 권장량에 크게 뒤진다. 총섭취열량중 당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의대부분(69.6%)이 곡류, 그것도 쌀(49.7%)에 치우쳐있다.

쌀은 하나의 당질공급源에 불과하다. 당질공급源이란 점에서 쌀은 보리나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와 크게 다를것이 없다. 그런데도 쌀만을 찾고있다. 이때문에 막대한 외화를쌀 도입을 위해 써야한다.

단백질 섭취량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 그러나 전체 단백질 섭취량중 양질의 동물성 단백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1에 못미친다. 단백질 1백g을 얻는데 콩(大豆)은 1백54원, 생선은 1백73원이 든다. 이에비해 쇠고기는 1천8백22원이 든다. 대략 돼지고기의 2배, 닭고기의 6배, 생선의 10배나 되는 비싼 값이다. 그런데도 쇠고기를 찾고있다.

무기질에선 칼슘과 철분이, 비타민류에선 A와 B1、B2、나이아신、비타민C등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고있다. 여기에 소금 섭취량이 높다. 영양면에선 엇비슷하면서 가지수만 많은 우리의 식단도 문제. 이토록 우리의 식생활엔 고쳐야할 점이 많다.

하지만 잘못된 식생활패턴을 바로잡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치않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 식품을골라먹는다.

맛이 없으면 아무리 영양가가 좋아도 먹지 않는다. 식성이란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질수 없기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명절이나 생일을맞으면 쌀밥과 쇠고기국을 藥인다. 특별한 날엔 잘먹어야한다는 생각과 잘먹는다고 하는것이 기껏 쌀밥과 쇠고기를 찾는 전래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金西煥한국과학기술원 식품공학연구실장은 이같은 일은 대학에서 가정학을 전공,영양사자격을 딴 주부에게서도찾아볼수 있다고 한다. 金실장은 따라서 식생활개선은 주부만의 문제가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일이라 강조한다.

모방에서 세계선두를 달리는 일본은 식생활개선에서도단연앞서가고 있다.

일본은 국민학교시절부터 영양문제를 가르치고있다. 일본 남성들은 요리를 배우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않는다. 金실장은 이같은 일본의 본보기를 배울필요가 있다고했다. 金실장은 식생활개선은 식생활합리화란 말이 보다적절한 표현같다면서 이런뜻에서 식품과 영양에대한 산 지식을 보다 널리 일반인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식생활은 단지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즐거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영양학상의 지식이 식생활개선에,아무리 이롭다 해도 이를 의도적으로 주입해서는안된다. 이는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줄 알면서 개인의 기호를 막을수 없는것과 같다.

蔡範錫서울대 의대교수는 이런뜻에서 식생활개선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유도해야 한다고설명했다.

식생활을 개선하면 체력과 건강을 높일 수 있다. 국내의 식량자원을 효율성있게 활용, 식량절약은 물론,개인과 국가의 경제를 윤택케 한다. 蔡박사는 이같은 실제적인 잇점을 널리 알려야 할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바탕에서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그릇된 전통의식을 바로잡고 식품과 영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 식생활패턴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식생활개선은 모든 국민에게 균형된 영양을 안정되게 공급하면서 효율적인 소비정책과 영양교육 그리고 폭넓은 홍보를 통해 합리적인 식생활유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朱龍宰한국農村經濟研究院연구위원은 앞으로의 식생활개선시책은 저소득층의 영양부족상태를 권장량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소득이 늘어남에따라 크게 문제될 영양과잉상태를 막고 적정수준의 영양을 공급할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식량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량의 자급능력을 배양하기위해서 식량증산도 중요하지만 식생활을 국내에서 자급해 갈수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뜻에서 국내에서 증산여력이 있는 보리쌀과 감자류의 소비를 늘려가야한다. 朱연구위원은 이같은 여러국내 제약여건속에서 식량자급률을 적정수준에 유지하려면 우리나라실정에맞는 한국적식생활양식을 정착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朱軫淳 高大부설 한국영양문제연구소소장은 식생활개선은 정부에서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개선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연구투자와 각종 식품의 균형적인 소비유도가 따라가도록 일관성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채로운 한국料理 찜만 16가지

식생활變遷史

우리말 가운데는 먹는 것과 관련된 욕이 많다. 또 언어학자들은 우리말의 특징중 하나로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맛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지적한다. 기본적인 식생활해결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지나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풀이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식생활 여건속에서도 왕족이나 귀족계급등 일부 계층에서는 놀랄 정도로 다채로운 식생활을 누렸다. 궁중요리를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호남지방등 토속적인 전통음식솜씨가 많이 남아있는 지방에 가면 음식점의 대중음식에서조차 다채롭게 차려내놓는 반찬종류에 놀라게 된다.

이조중기인 18세기의 식생활을 알려주는 閨閤叢書(憑虛閣李씨지음)는 당시 酒食부문의 조리법뿐만 아니라 각종 식단에 대해 한글로 상세하게 기록한 많지 않은 책중의 하나이다. 漢陽大 李孝枝교수(가정학)의 「閨閤叢書·酒食議의 조리과학적 고찰」이란 논문에 의하면, 閨閤叢書에 나오는 주식은 밥 죽 의이(율무의 藥草죽) 미음 면 만두등 6가지이며 밥종류만해도 기장 조 피 밥등 재료에 따라 14가지나 된다.

부식은 갱(탕) 찜 신선로 전유어 포 구이 젓갈 자반 족편 회 적 나물 김치등이 나오는데 그중 찜이 16가지로 가장 많아 당시 찜요리가 상당히 발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찜의 재료는 붕어 자라 게 쇠곱창 개 메추리 꿩 돼지새끼집 송이버섯등 50여가지에 이른다.

김치는 섞박지 어육김치 생치(꿩)김치 동치미 오이지 산갓김치 전복김치등이 나온다.

후식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떡 잡과 음료등 세종류가 나온다. 그중 떡이 32종, 음료가 18종이나 된다.

떡의 재료로는 곡식뿐만 아니라 유자 살구 복숭아등의 과실과 진달래 장미 국화등 39가지의 꽃이 이용됐다.

음료에도 꿀 오미자 진달래 국화 매화 포도 배 생강등 24가지나 되는 재료를 사용, 향기와 청량감을 즐겼다.

後食도 아주다양… 떡32·음료18종류나
兩班집선 9종 반찬곁들인 9첩반상
80년대 食道樂거쳐 食生活 예술化로

양념은 장 초 기름 엿 조청 소금등이 나온다. 장종류는 고추장 어육장 즙장 죽순장 청장등 13종류에 이르고 재료는 메주 콩 꿀 대추 두부 숭어 전복 꿩 닭등 45가지가 이용됐다.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외에 봉선화씨 순무씨 수박씨 아주까리기름등이 있다.

위에 쓴 책이외에 우리조상의 식습관에 대해 쓴 책은 별로 눈에 띄지않으나 경북安東의 어느 반가에 소장된 是議方이란 책은 일제시대의 서울의 어느 반가음식의 조리법과 상차림법을 기록해 놓고있다.

이 책에 따르면 양반집에서 음식을 가장 잘 차릴때는 9첩반상을, 다음이 7첩·5첩반상을 차렸다. 밥 국 찌개 김치등은 첩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9첩반상이면 위에 든 음식이외에 9종의 반찬이 따르게된다.

상은 반드시 하나로 차리되 음식은 보기좋게 괴어 담아서 어른이 먹고 나면 그 상을 그대로 물려 받아 집안 식구들이 먹고 그것을 다시 하인들이 먹었다.

이런 격식을 갖추었던 식습관이 일본의 통치하에서 점차 무너졌다. 식사때는 상을 여러개 차려 남녀로 구분, 각방에서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먹는 풍조가 생겼다.

해방후에는 식량결핍시대에서 충족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급화추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향상에따른 식생활의 기본적 변천과정은 ①해방후 50년대 까지의 보리고개 초근목피식으로 표현되는 생존식 ②60년대의 식생활인식시대 ③70년대의 식생활선택시대 ④80년대의 식도락시대를 거쳐 ⑤식생활의 예술화시대로 접어드는 5단계로 구분할수 있다.

식사의 형식은 결핍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주식으로서 만복감만을 추구했고 충족의 단계에서는 주식보다는 부식으로 맛좋은 음식을 택하게 되고 풍족한 식사 단계나 과잉단계에서는 기호식품이나 건강식품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된다.

현재 우리는 충족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식이 주가 되는 식물성단백, 동물성단백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식물단백식품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의 단백질섭취량중의 대부분은 곡류에서 공급되고 있어 영양공급면에서의 단백질섭취원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도시화 및 핵가족시대의 가속화, 여가선용의 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직장 진출의 증대, 식품산업의 발달등 제반요인이 상호연계 또는 보완되면서 점차 국민의 식생활에대한 가치관이 바뀌어 손쉬운 요리, 맛과 영양이 있는 식품,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의 식생활패턴은 첫째 단백식품의 섭취가 보편화되면서 그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소득수준이 점차 평준화되면서 새로운 수요층이 창출되고 물질생활의 충족과 養育重視의 관념이 팽배해지면서 가속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등 동물성단백질의 섭취량이 1인 1일 60g까지 올라가는등 구미선진국수준에 접근할 것이며 식용유를 비롯한 식물성단백질의 섭취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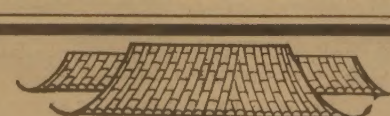
앞으로 더욱 생활이 윤택해지면 낮휴무가 길어질것이 분명하고 이에따라 충실하고 고급스런 점심식사가 요구될것이다.

또 노동시간도 상오 4시간동안 더욱심한 노동을 하고 낮12시께 귀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기게 되는 시기가 올것이다.

이러한 식생활을 뒷받침하는 완전영양고급식품이 상품화되어 시판하는 공장이 가동되고 전자레인지등 각종 전자식 조리기구가 대중화될것이다.

【金基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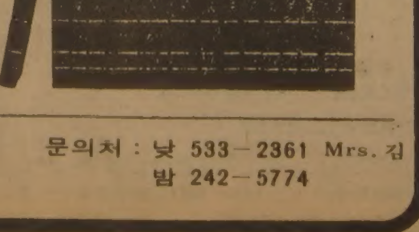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 532-0602
※일요일은 휴업 김 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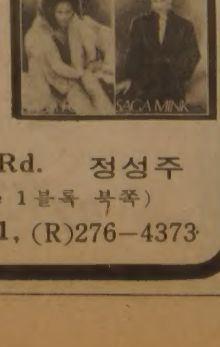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291-9590
ZAIDI& ASSOCIATES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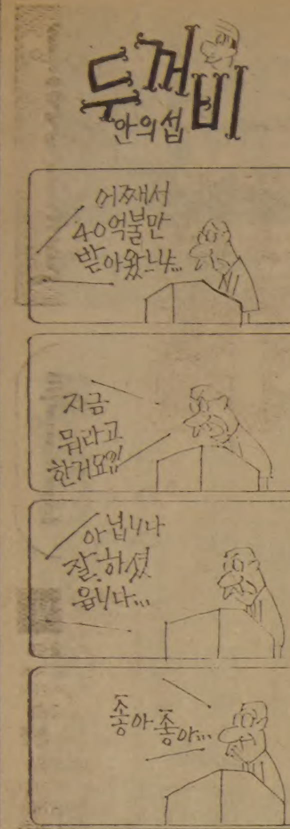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럭 북쪽)
☎: 241-8091, (R)276-4373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醫保카드 入院수속 즉시返還

退院까지 보관…家族불편 많아

보사부, 관계基準 개정

보사부는 병·의원들이 의료보험 환자의 보험카드를 진료가 끝날때까지 보관치말고 입원 또는 내원수속이 끝나면 즉시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전국 병·의원에 시달했다.

17일 보사부당국에 따르면 의료보험 요양 취급기준을 개정, 입원환자의 경우 종전에 입원때 보관했다가 퇴원할때 환자에게 반환해온 의료보험카드를 입원수속이 끝나는즉시 환자에게 돌려주고 퇴원시 다시 제출, 소정사항을 기입토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계속 통원하는 의료환자에대해서도 치료가 끝날때까지 보험카드를 보관치말고 그날 그날 치료가끝난후 보험카드를 환자에게 반환해주도록 전국 병·의원에 시달했다.

지금까지 병·의원들은 의료보험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입원보증금을 미리 받지않는 대신 환자의 도주사고등을 막기위해 퇴원시까지 의료보험카드를 장기보관시켜와 가족중 다른사람이 발병했을경우 보험카드를 활용할수 없기때문에 가입자들이 불편을겪어왔고 병·의원측과 마찰을일으켜왔었다.

또 일부 병·의원에서는계속 통원하는 환자들의 보험카드도 보관해와 가입자와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어왔는데 보사부의 한당국자는 병·의원들은 통원환자들이 다른병·의원으로 가는것을 막기위해 보험카드를 보관해온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보험환자의 입원보증금제도가 없어짐에따라 병·의원들이 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금납부를 지나치게 독촉하고있는 경향을 막기위해 개정요양취급기준에 입원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징수할수있도록 규정하고 퇴원시에는 의료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식대·병실료 차액·특진료)에 대해는 보험급여 영수증과 구별되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부해주도록 전국병·의원에 지시했다.

어제 釜山태광산업 시험稼動 세팅機 폭발

셋死亡 5명重傷

【釜山】16일하오 3시30분 부산東萊區久瑞洞90 태광산업 스팀실에서 모포를 스팀으로 찌는 기계인 세팅기를 시험가동하던중 세팅기 철문이 튀어나오는바람에 이 회사 기사 김성씨(53)도안이사 문태진씨(42) 세팅기를 제작했던 서일공업사 공원 김복실군(18)등 3명이 철문에맞아 현장에서숨지고 서일공업사 생산과장 권오선씨(45) 태광산업 기사 도효동씨(40)등 5명이 중상을입고 인근 녹십자병원에 입원치료중이나 중태이다.

이날 사고는 태광산업이 北區甘田洞에있는 서일공업사에 세팅기를 제작의뢰, 지난13일부터 태광산업 세팅실에서 스팀기사들과 제작회사의 책임과장인 권씨등이 시험가동중 직경2m10cm 두께 7cm 무게 2백50kg의 세팅기 철문이 수증기압력을 이기지 못해 일어났다.【聯】

승용차·트럭衝突 銀行員 3명死傷

【大邱】16일하오10시35분께 大邱시東區桃洞앞 경부고속도로상행선 서울기점 3백km 지점에서 충남1하5001호 로열자가용승용차가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 상행선에서 달려오던 한일운수 소속 부산7아3320호 9톤트럭(운전사 이달현·29)과 정면충돌, 승용차에 타고있던 제일은행大田지점 행원 이은준씨(32)와 이상열씨(32)등 2명이 그자리서 숨지고 운전을 하던 배성호씨(20·제일은행주지점행원)가 중상을 입었다.

숨진 이씨등 3명의 은행원들은 연휴를맞아 大田에서 로열자가용을 전세내 부산으로 가던중이었다。【聯】

教師사칭 學父母사기

"學生 入院했다" 수속비가로채

【淸州】교사를 사칭, 학부모를 찾아가 학생이 사고로 입원해 있다고 속여 치료비를 마련케 한후 병원까지 함께 와 수속한다며 돈을 가로채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15일하오2시께 淸州市 中央여고 3학년 金모양(18)집인 충북堤原郡鳳陽面三巨里에 35세가량의 남자가 찾아와 아버지 金진문씨(45·농업)에게 『金양의 담임선생인데 지금 金양이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서울성심병원에 입원, 수술비 1백2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급히 돈을 마련, 병원까지 함께 왔으나 범인은 수속을 밟고 온다며 복도에서 金씨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은후 행방을 감추었다는것.

이에앞서 지난13일 상오11시께도 35세가량된남자가 충북 淸原郡加德面內岩里104번지 李선엽씨(48·농업)집에 찾아와 『내가 차녀 수양이 다니는 淸州女商교사인데 남수양이 교통사고로淸州시내 서울병원에 입원해있으니 빨리 수술비를 가져가야한다』면서 李씨와함께 서울병원까지 와서 23만원을넘겨받은뒤 행방을 감췄다.

이어 같은날 하오4시께도 槐山郡曾坪邑 曾坪工高1년 金용환군(15)집인 충북 鎭川郡栢谷面雨白里에 35세가량의 남자가 나타나 담임선생님을 사칭, 『용환군이 친구와 싸우다 머리를 크게 다쳐 서울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여 서울대병원 대기실까지 함께와 같은 수법으로 33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35세가량의 남자를 수배했다.【聯】

暗票商1명即審에

터미널등團束나서

속보=서울江南고속버스터미널암표상단속에나선서울江南경찰서는 17일 현사기동대를 고정배치, 상습암표상 李貞子(31·서울冠岳區奉天5洞101)를 검거,즉심에 넘겼다.

경찰은 암표상이 근절될때까지 단속을 계속키로했다.

市外버스 논에굴러

1명死亡 21명다쳐

17일하오2시30분께 충북鎭川郡梨月面沙谷里앞길에서 서울을떠나 鎭川으로 가던경일여객소속 경기5아3360호 시외버스(운전사 조춘호·27)가 5m아래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승객1명이 그자리서 숨지고 21명이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달리던 버스 앞바퀴에 펑크가 나면서 방향이 뒤틀려 일어났다.

賂物뿌리친 警查 1계급特進 격려

【大田】거액의 뇌물을 뿌리친채 공정한 수사를 벌였던 충남도경 수사과 趙昌鎬경사가 16일 1계급 특진했다.

趙경위는 지난5월10일忠南牙山郡牙山축산기업조합(조합장 俞明錫·33)의 횡령사건에대해 수사중 조합장 俞씨가 『사건을 묵인해달라』며 건네준 현금 2백만원을 뿌리치고 공정한 수사를 해俞씨등 관련자 4명을 모두 횡령혐의로 구속했었다。【聯】

堤原국교생 10명 高熱·설사등怪疾

【堤原】충북堤原郡松鶴面송학국교 洪명의군(7)등 1학년학생 10명이 일주일전부터 고열에 설사를 하며 얼굴에는 붉은반점이 생기는 등 심하게 앓아오다가 16일에는 엄광현군(7)등 7명이 집단결석했다.

堤原군보건소는 이들 어린 환자들의 가검물을수거, 도 보건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전당국이 방역작업에 나섰다.

어제 34돌 制憲節…기념식

17일은 제34주년 제헌절.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도별로 기념식을 갖고 제헌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킬것을 다짐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상오10시 世宗문화회관소강당에서 金相浹국무총리서리, 丁來赫국회의장, 俞泰興대법원장등 3부요인을 비롯, 시민·학생등 9백56명이 참석한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한편 金聖培서울시장은 기념식이 끝난뒤 상오10시50분부터 世宗홀에서 제헌국회의원을 위한 리셉션을 베풀었다.

미스코리아太平洋화학 金美善양, 말聯向發

82미스코리아(태평양화학) 金美善양(사진·18·단국대성악과2년)이 오는 8월2일 말聯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스아시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7일정오 金浦공항을 떠났다.

東海岸 해수욕장 基盤시설 못갖춰

【東海】강원도 동해안 일대는 서울~江陵~三陟간 영동고속도로와 江陵~三陟간 동해고속도로개통후 전국에서 피서객들이 각해수욕장에 몰려들고있으나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개장5년이 지나도록 상수도를 비롯, 진입로포장등 기반시설을 갖추지못한데다가 수용시설마저 간이시설에 불과해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강원도남부지역인東海·三陟군관내는 지난75년 영동·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관광객이 급증하자 2년후인 77년부터 곳곳에 군소해수욕장이 민자로 개발됐다。현재 東海市望祥해수욕장을 비롯 三陟郡厚津등 6개 해수욕장은 민간업자가, 德山등 4개 해수욕장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는등 동해남부지방에 10개소가 있고 동해안 일대에 30여개소에 이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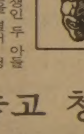
그러나 해수욕장마다 간이급수시설밖에 되어있지않고 국도~해수욕장간 진입로가 포장되지않은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못하고 있으며 피서객이용시설인 숙박·식당·매점·샤워장·위락시설등이 천막이나 합판등으로된 간이시설이 고작이어서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

이같이 동해남부해수욕장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못한것은 해당市·郡이 시설에 소요되는 엄청난예산을 확보할수없는데다가 해수욕시즌이 40여일에 불과해 시설투자를 할수없기 때문이다.【聯】

멋진 休暇

汝矣島광장에 텐트친 金興龍씨

冊 1만권 쌓아놓고 청소년 讀書운동



옛사람들은 대청마루에 배를 깔고 책을 읽으며 三伏더위를 잊었다. 그러나 「바캉스시대」를 사는 현대 도시인들에겐 통풍 잘되는 대청도 없거니와 雪山이나 茂朱九千洞에라도 며칠 다녀오지 않고는 여름을 난 기분을 느끼려 하지 않는다.

17일 汝矣島광장서에 8평크기의 텐트를 치고 간이독서실을 연 金興龍씨(사진·44·한국문헌정보원)는 예와 지금을 절충한 가장 멋진 휴가를 보내는 사람인 것 같다. 피서가 아니라 봉사라 할수 있다. 귀중한 3일휴가를 중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이 천막독서실을 열어 청소년에게 신간서적을 읽히게하는것으로 보낼 예정이다.

누구든지 헌책 2권을 가져오면 잉크냄새가 아직 덜 떨어진 신간도서 2권을 맞바꿔준다. 그는 독서운동을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시하는 「奇人」이지만 이야외독서실을 준비하는게 쉽지만은 않았다.

월급을 털어 책을 샀고, 독지가와 출판사를 찾아 구걸하다시피해 1만여권을 모았으며 5천권은 이곳에 갖다놨다。또 며칠을 관청에 뛰어다닌끝에 汝矣島광장한조각을 임대했다. 민간인으론 처음이란다.

그가 책에 미친것은 그만한 내력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병에걸리면 대개 종교에 매달리고 그래서 나았다는사람도 더러 있다. 金씨는 종교대신 책에 매달렸다.

66년 신장병을 앓기시작, 8년간 名醫를 찾았으나 고개를 흔들어 절망에 빠졌을때 金씨는 독서를 약으로 썼다. 鬪病記는모두 읽었다. 위인전도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 독서의 위력으로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金씨는 책에 관한한 狂人이 돼버렸다. 청과장수를하는 부인, 중학생인 두 아들까지 독서운동엔 한덩어리다.

그는 장서를 관리하기 위해 야간을 이용,成大司書교육과정을 수료하기까지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다시 司書일을 가르치는 극성을 보이기도…。

金씨의 독서운동은 80년부터 시내버스에 책을 비치해 주었고,올해부터 전철에 「달리는 독서실」을만들었다. 金씨는 어느새 병원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독서로 병을 고쳐 덤으로 사는 인생, 독서운동에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金씨의 천막옆에 많으니 과도소리는 없어도 시원한기분이다.【朴珍烈기자】

"結婚조건은 매우 打算的

仲媒챔피언 申惠英씨에게 듣는다

相談所에비친 風俗百態

「술 석잔」과 「뺨 세대」 사이를 헤치며 살아왔다。그것도 자그마치 23년동안이나。申惠英여사(65)。耳順의 나이가 되려면 아직도 4년을 기다려야할 연륜에 3천5백쌍을 결혼 시켰으니 기네스북에라도 오를만한 중매 챔피언이다。申여사는 지난 12일 서울南山공원에서 농촌총각과 도시처녀의 집단 맞선을주선, 다시한번 자타가 공인하는우리나라 제일의 직업중매인임을 과시했다。

◇농촌총각에게 시집가겠다는 도시처녀 車모양과 이야기를 나누는 申惠英여사㊧。

그녀의 업적은 전통적인유교사회도 아니고 그렇다고개방적인 서구사회도 아닌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풍토에서 「중매업」을 최초로 기업화했다는 선구자라는데 의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이번에 마련했던도시와 농촌의 처녀·총각 집단맞선은 결혼중매인으로서의 23년을 회고해보는 걸작중의 하나. 처녀들이 너도나도 도시로 떠난뒤 총각들도 철새처럼 도시로 몰리는 사회를 보고 직업의식과함께 느낀바 있어 착상한것이라는 것.

"八字 고쳐보자"많아

여자 高試합격자·醫師·財産家등 원해

남자 水泳場 데려가 몸매 테스트까지

처음에는쉬울듯했으나아직도 우리나라전통관념에「매파」라는 멸시적 인식이 남아있는데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를 추진하는데 결국 4년이나 걸렸다.

다행히 현장에서 4쌍이결혼을 약속했고 그뒤 나흘동안 10쌍정도가 결혼할 뜻을 보여 보람을 느꼈다.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체계는 결혼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지없이 노출되게 마련이다. 60년대말까지만해도「고독女」가 「진실男」을 원하다. 혹은 「재산男」이「성실女」를 구한다는등의 구혼광고들이 신문의 안내광고란을 가득히 메우곤했었다.

결혼상담소의 기업화와 더불어 이같이 인간적인 구혼광고들도 자취를 감추어버렸지만 申여사의 중매창구에비친 시대의 얼굴은 밝고 건전한것이라고만은 할수없을것 같다. 물론 성실하고 정직한 보통사람들도 많지만 「만남」을 통해 백년해로의 부부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지만, 결혼을 통해서「팔자를 고쳐보자」는 생각으로 덤비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동반자로서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기본자세가 없이 상대방이 이미 획득해놓은지위, 자격, 신분, 富에 편승해서 안온한 생존여건을 마련해보려는 인생도 많은것. 남자들의 경우는 여기에다 여자의 미모와 육체미에대한 동경까지 겹쳐있다고한다. 미국 「교민사회의 결혼상담소의 경우도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는 신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申여사에 따르면 남자의경우는약사,교사등 맞벌이를할수있는 여자를 첫번째 조건으로 원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 역시 고시합격자나 의사들을 원하는 타산성은 세월이가도 변하지 않는다고。남자들은 또 여자의 얼굴과 몸매를 빼놓을수없는 조건으로 삼고있어 어떤사람은 인기 여자탤런트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그런 얼굴을 골라달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여자의 나체사진을 내밀며『이런 몸매를 원한다』는 몰염치꾼도 있다。또 소개해 주기가 무섭게 여자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몸매 심사를 하는 성급파도 있다고 申여사는 전했다。

이처럼 돈과 지위, 미모를 무조건 추구하는 양측의 심리를 악용해서 「마담·뚜」들이 번창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스터·뚜」까지도 등장하고 있다고 申여사는 개탄한다。

申여사의 결혼상담소에 접수된 신청건은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18대1로 나타났다。여자인구가 남자보다 다소 많기도 하지만, 생애를 결혼에 의존하는 경향이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상대를 낚기위해자신을 허위로 소개하는「가짜」들도많기때문에 이「가짜」를 적발해내기위해 상담소는 일종의「조사」기능 까지를 갖추어야한다. 가정방문으로 주거지를 확인해야하고 학교, 직장에 사람을 보내 학력, 경력등을 확인하고 소속사회의 인물평을 듣기도 한다. 재혼남자의 경우는 자신은 자녀가 2~3명씩 있어도

都市처녀·農村총각맞선 10쌍成功도

申請 비율은 여자가 18대1로 남자보다 높아

「마담뚜」 활개치고 최근엔 「미스터뚜」까지登場

여자측에는 아이가 없기를 바라는 이기주의자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자녀의 숫자까지도 확인해두어야 한다。돈많은 집 「처녀」를 원하는 재혼남은 아예말상대도 않고 돌려보낸다고。

신원과 지위에 관한 사실확인이 끝나면 짝을 맞추기작업이 시작되는데 대체로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끼리연결시켜주고 있지만 「더 낳은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한번 만나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않으면 수십번씩 상대를 바꾸어가며 선을보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결혼풍속의 요지경도 바뀌어간다。그러나 결혼은 「人倫之大事」로써 결코 세월과 더불어 바뀌어서는 안될 소중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것이 이 요지경속을 23년간 들여다보아온 申여사의 결론이다。【徐華淑기자】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531-0277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 성 수
교포경영(TORONTO 15년 경력)분납가능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537-0432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3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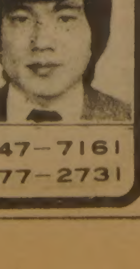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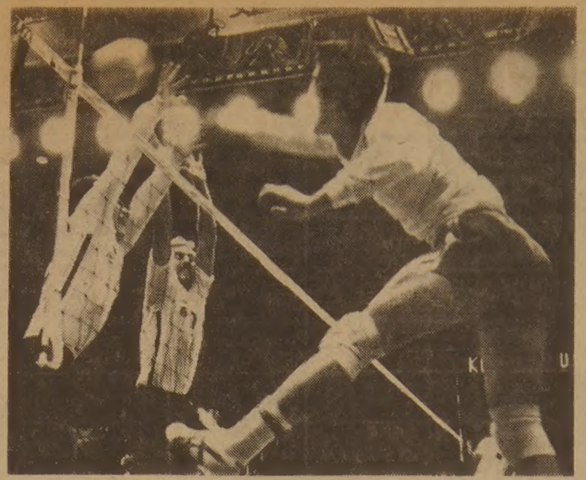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 : 박경옥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한국、美에 衝擊의 2連敗

국제男子배구 「한수 위」가 「한수 아래」로

서로 主戰빠… 핑계도 안통해



◇한국배구 暗雲 한국과 美國의 대결, 한국은 한수아래로 지목되던 美國에 2연패, 주요국제대회를 앞두고 충격을 일으켰다.

한국은 17일 문화체육관서 폐막된 국제친선 남자배구대회 美國과의 마지막5차전서 3-0으로 패배, 큰 충격을 일으켰다. 한국은 지난해 월드컵 3위인 브라질과 캐나다 印度에는 이겼으나 우리보다 한수아래로 지목되던 美國에 2連敗했다.

한국은 레프트 주공이며주장인 姜斗泰, 중앙속공수 柳重卓, 최장신 李鍾畝등 주전 3명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美國역시 주전 세터 드보락(190cm) 선더랜드(198cm) 버진스(189cm)등 주전 3명을 기용하지 않은 첫 세트서 9점차로 승리, 우위를 입증했다.

오는 10월세계선수권대회(아르헨티나)와 11월 印度아시안게임을 앞두고있는 한국으로서는 부상중인 3명이 하루빨리 완쾌, 코트에 복귀하는것이 가장바람직한 일이지만 만일의사태에 대비, 새로운 전술개발과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의 단신세터 李龜桂는 이날토스웍이 좋지않아 공격수들이 상대블로킹을 뚫는데 고전했다.

제2세트 5-10으로 뒤질때 李대신 184cm의 金仁玉을 세터로 기용, 첫 세트때보다는 좋은 플레이를 벌였지만 美國의 강한 블로킹벽을 뚫지 못하고 10-15로 좌절했다. 한국보다 키가 약 5cm가 큰 美國에는 중앙속공등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앞으로 장신 세터를기용, 네트상단부를 따라 흐르는직선토스로 폭을 넓히는 공격법이 개발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진지한 태도로 경기에 임했으며 어려운 볼을 끝까지 뒤쫓아 건져올리는등 게임 리딩도 수준급이었다.

◇최종일전적

미국 3 (15-13, 15-10, 15-6) 0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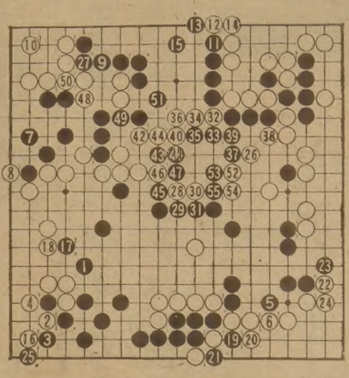
캐나다 3 (15-4, 15-7, 16-14) 0 인도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3局 第10譜 (각5시간·덤5집반)

黑 (名人) 曺薰鉉 〈2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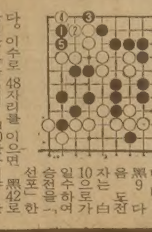
白 (挑戰者) 徐奉洙 〈2敗〉



挑戰者 勝勢확립

우상黑과 하변白의 교환은 白2、4로 黑귀를 뜯어낸것이 커서 득실이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白의우세는 여전하다. 名人은 벌써 패배를 확인하고 있었는지 하오1시 점심휴식시간이 되자 黑7로 호구치더니 잠깐 생각한다음 『곧 끝낼테니 계속하지』하며 고개를들었고 도전자도 선뜻『그러지』하고 끄덕였다. 이것이 대국중단 한번의 대화이거니와 하필이면 이날따라 두대국자의 점심식사를 시간맞춰 미리 준비해둔 진행계는 약간 당황하고 있었다.

어쨌건 바둑은 白의승리가 결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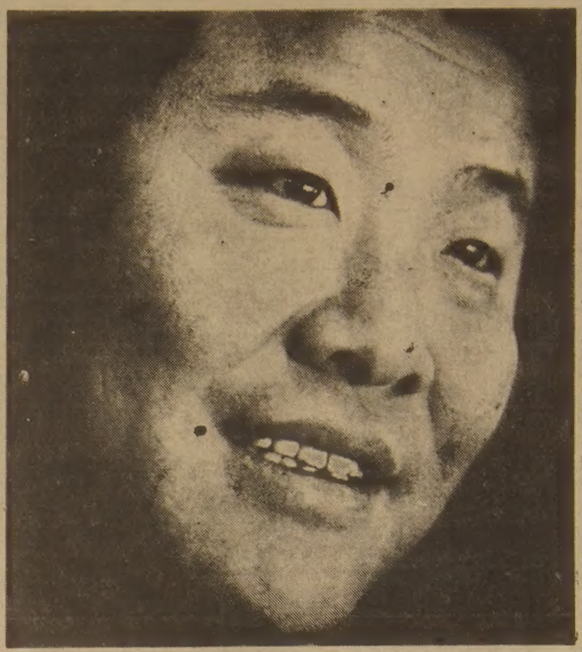


白8、黑9 다음 도전자는 白10으로 가일수하여 승전을 「선포」한다. 이수로 48자리를 이으면 黑42로 쌍립한 다음 역시 白10을두어야 한다. 만약손을 빼었다가 참고도의 수단을당하면 白귀가 무사하지 않다. 黑19부터 끝내기단계. 黑27은 원래 37에 붙여뻗어 白32를 예방할시기였으나 名人은 굳이 白32를 유도하여 최후의일전을 피했다. 하지만 白은42의 호착으로 좌변과 연결해갔다. 黑은55로 白2점을 잡았지만 白도50의 선수로 4점을 살려가서 오히려 득을본 결과이다. 【一凡】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나는 모함에 말려들었다"

申東坡감독 女子농구대표팀 사퇴波紋 本紙인터뷰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申東坡감독은 대표팀 감독직 사퇴를 결심하기까지의 사정을 16일 털어놓았다.

"成貞兒기용 필요성 강조한것뿐

「상오代表팀、하오青少年팀 연습」提示안해

會長결정 하루아침 바뀌는狀況선 일못해"

여자농구대표팀 申東坡감독의 사퇴파문은 농구계뿐만아니라 스포츠계의 비상한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구계일각에서는 아시안게임이라는 중요한 大事를 앞두고 成貞兒선발문제로 감독직을 사퇴한것은 公人으로서 취할태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申감독은『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하고있다. 사표를 던진뒤 1주일간 시골로 잠적했다가 16일하오 서울에 돌아왔다는 申감독은 본사기자와의 단독인터뷰서 사퇴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편집자註】

『이토록 억울할수가 없읍니다. 결코 대표팀감독을 맡지 않겠읍니다』

여자농구대표팀 감독 사퇴문제를 놓고 구구한 억측을 자아냈던 申東坡감독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지난8일 대표팀 사퇴서를 농구협회에 제출한후 일주일동안 속리산 경포대등지에서 머리를 식힌후 16일 하오 서울에온 申감독은 成貞兒선수(三千浦女高1년)의 대표팀 기용문제에 대해 『농구협회로부터 成을 오는9월 마닐라 청소년대회에 참가시킨후 대표선수로 기용해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의받은적도 없으며 이를 거절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자신은 모함에 말려들었다고 밝혔다. 申감독은『成貞兒를 상오에는 대표팀서, 하오에는 청소년 팀서 연습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鄭周鉉농구협회 총무이사가 자신에게 제시한 것이며 내가 말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이사회를 끝낸후 成貞兒를 대표로 기용해주겠다는 협회 타협안을 申감독이 거절했고, 成을 상오, 하오로 나누어 훈련을 시켜달라는 申감독의 제안은 이사회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발표했었다.

申감독이 成貞兒 기용문제를 처음들고 나온것은 4월 東京ABC가 끝난후 였으며 對中共전서 수훈을세운 [illegible](太平洋化學)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상을 남한후 印度아시안게임서는 成이 절대필요하다고 협회에요청했다는것.

그는 『成을 기용해주지 않으면 泰陵선수촌에 입촌할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이와같은 발언은 成貞兒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위한 것이었지 사퇴할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6년간 대표팀을 맡은 사람으로서 남다른 책임감도 있었고, 아시안게임서 우승하면 연금혜택받는 영광을 얻게되는데 사퇴를 고집할 이유가 없지않느냐』고 반문했다.

申감독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것은 자신이 제안하지도 않은 成貞兒의 상·하오 교체훈련 문제가 농구협회 이사회서 거론되어 많은 농구인들로부터 오해와 지탄을 받게되면서부터라는것. 申감독은 『모든 요구조건을 받아주겠다는 李東燦농구협회장의 연락을 받은후 泰陵에 들어갈 준비까지 했었다』고 말하고 『회장의 결정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상황에서 더 대표팀을 맡을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사표를 냈읍니다. 그리고 사표낸 사실을 왜 발표하지 않느냐고 농구협회에 항의하기도 했읍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 모함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成貞兒선수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太平洋化學의 申東坡, 코오롱의 鄭周鉉씨 사이에 빚어진 소동이 아니냐는 농구계의 추측에 대해 申감독은 펄쩍 뛰었다. 『어처구니없는 설입니다. 구멍뚫린 대표팀의 전력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수가 없읍니다. 만일 中共과의 대전서 실패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반문했다.

申감독은 자신의 거취문제 때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고 『절대로 대표팀감독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閔炳宅기자】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키다리美國 우승

短身자유중국 준우승 오스트리아에 逆轉劇

——국제초청男子농구 폐막

82서울국제초청남자농구대회가 17일 장충체육관서 폐막됐다.

최종일경기서 단신의 自由中國은 개인기로 오스트리아에 85-79로 역전승, 3승2패로 美國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美國은 이날 4승을기록, 우승이 확정됐다. 한편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대전서는 스웨덴이 뉴질랜드를 69-67로 이겼다.

◇최종일전적

자유중국 85 (45-35, 40-44) 79 오스트리아 (3승2패) (1승4패)

스웨덴 69 (36-30, 33-37) 67 뉴질랜드 (3승2패) (1승4패)

내일 會長團회의 鄭체육회장 召集

鄭周永대한체육회장은 19일상오10시 회장단회의를 소집, 체육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으로 집무를 시작한다.

이어 22일하오5시에는 첫 이사회가 열리며, 24일에는 KOC(대한올림픽委) 위원총회도 개최된다.

◇國體 기다리는 馬山운동장 금년도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남馬山시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앞에 세워질 높이13·1m크기의 기념탑모형도。 【[illegible]】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한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7: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7-6847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2시반 영어예배 1:30 새벽기도 6: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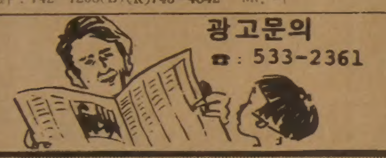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총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친절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 : 533-2361
광고문의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 Variety Store에서 하루5시간 Help 해주실분(유경험자 원함). 또는 가게를 직접맡아서 운영하실분 구함. 전화 : 967-4461 (Mr. 용)

Full Time dishwasher구함. (주6일 월요일은 쉼)
일하는 시간: 11:00a.m-2:30p.m. 5:00p.m-11:00p.m.
Mike 전화 : 487-3508

유경험자 Manager 구함
오후8시에서 11시사이에 449-6098로 연락바람.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Full Time Cashier 구함. (Day Time)
(Kipling & Bloor 근처)
전화 : 231-7944 (Mr. Hong)

세탁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무경험도 환영)
(Jane & Lawrence 지역) 오후 2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249-9331 (After 2:00p.m.)

경험많은 주말 가게 Helper 구함.
전화 : 278-8101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파실물건이 있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master charge THE INTERBANK CARD
VISA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 동 훈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Plaza에 있는 그로서리가게. 건강상 급매(일요일문닫음)
주매상 : $4,000이상. 리스: 4년4개월+5년 옵션
렌트 : $840. 1196 Kennedy Rd.(직접 내방바람)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Variety & Grocery Store 급매
전화 : 694-784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 Ne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7,000~$8,000. 리스 : 3년반 + 5년 option
로타리오 머신 있음. 아스킹 : $80,000
115 Montezuma Trail. (Brimly & Finch)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바람.

1. Coffee & Snack Shop
주 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내.
주매상: $5,000 Rent: $830 리스: 1990년
2. Albion Rd. & Hwy 27 공장지대
한국요리를 겸할수 있는 Chinese Restaurant
주류일절 판매. Rent: $1,000 리스: 1986년 + 5년 option
3. 시간짧은 Drive in Hambu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년 + 5년 option
A. E. LePage Real Estate
Mrs. Woo 전화 : 741-9170

일본식·한국식 음식점 매매.
Vancouver 부근(B.C) 좋은 장소임.
$80,000 현금 필요.
요리방식 지도해 드림.
Lakeviw Realty
Mr. Jack Im.
(R) (604)-591-5897
(B) (604)-588-9955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Hwy 10 × 던다스. 주 6일 매상 : $4,300
비데오머신 월 최저 $1,000 보장
(일요일 영업하던 가게였음)
리스 2년+5년. 렌트 $750. 가격 $5만+스탁(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Air Condition 급매. (Fedders)
용량: 36,000 B.T.U. Used One. 가격: $2,800
2 unit. 연락처: 277-8985, 656-6753(Ross)

잘 설비된 봉제공장을 매매코저함.
이 시간에 직접내방 바람. (월~금: 4:00 p.m~6:00 p.m)
292 Parliament St. (at Dundas)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년매상: $200,000 가격: $28,000 + 스탁
F. Gallo Realtor 전화: 1-383-9356

Grocery & Variety (새로 Open한 Store) 전화 : 431-4474
리스 : 5년+5년 Option (Lawrence & McCowan)
619 McCowan Rd.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 바람)

수퍼마켓 매매.
빌딩도 함께 팔 수 있음. (로렌스 × 빅토리아 파크)
전화 : 759-9331 Mr. 아트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1) 개인 Donut Shop (좋은 지역임)
주매상: $7,000이상 good mortgage
Rent: $2,200 아스킹: $290,000
(2)Hunts Bakery in Mall(open)
주매상 : $9,000. 6days Short Hour. 아스킹 : $220,000
다운페이 : $150,000. Best Bakery in Canada
(3)Coffee Shop in Building.
주매상 : $6,000. 5days Short Hours. 아스킹 : $210,000
다운페이 :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 Variety & Gift. 8년 리스. 아스킹: $34,000
6개의 Pin Ball Machine도 Asking Price에 포함됨.
2) Variety & Gift(Jane & Lawrence) 아스킹 : $19,900
3)2 Apt 포함한 Grocery Store.
at Queen St. 아스킹 : $145,000
4) Store와 Apt.(at Super Location) 아스킹 : $250,000
5) Wasaga Beach에 있는 8개의 Cottage
아스킹 : $189,000
For More Information Call Doris Burda.
전화 : 763-5555
R. Cholkan & Co. Ltd. Realtor.

성업중인 Variety Store 건물과 함께 매매.
주매상 : $3,600. 아스킹 : $85,900
전화 : 923-1206. Mrs. Lee (다운타운 지역)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Tuck Shop for Sale.(St.Clair & Yonge)
주변환경이 좋은 거주지역내에 있는 큰 건물안에 위치한 가게. 리스: 7년. 주매상: $3,700
Stegy Real Estate
759-4761
Mr. Vasos Alexandrou.

Bakery for Sale
직접 빵만드는 장비 포함.
소매, 도매 모두 취급(소매는 잘 자리잡혀진 주거지역에 위치. 공장에서 10분거리에 있음)
주매상 : $6,000 넓이 : 4,731 sq.ft.
아스킹 : $143,000
Anna Cheng 전화 : 421-2214 / 465-1360
Newbliss R. E. Corp.

보석상 (Bloor & Bathurst)
가게와 장비 포함. (월요일은 쉼)
10:00 a.m~6:00 p.m 전화 : 532-1525

집렌트

2층 전체를 세놓고자 함(565 Pape Ave.)
2 Bed Rm. with 부엌 & 목욕탕.(노인부부환영)
월세: $350(M.) 전화 : 591-6863, 438-4519

아파트렌트

1 Bed Rm. Apt. 세놓음. (Downtown)
Sherbourne & Wellesley (언제든지 입주가능)
$380/M. 전화 : 537-3608 (Mrs. 리)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춘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순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서×로얄욕) 전화: 255-1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타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화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